

2025학년도 동계
이화글로벌프론티어
탐사보고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해외 모범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음악교육 적용 방안 연구

- 생태주의, 문화다양성, 성평등 교육을 중심으로 -

목 차

I. 서론	3
A. 탐사의 배경	3
B. 탐사의 필요성	4
C. 연구 방법	5
II. 본론	6
A. 기존 연구 분석 및 본 연구의 독창성	6
1. 기존 논의 요약 및 정리	6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9
3. 본 연구의 독창성	10
B. 탐사 방법	11
1. 현지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의 필요성	11
2. 현지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의 기대효과	12
C. 탐사 내용	16
1. 국내 탐사 내용	16
2. 국내 전문가 인터뷰 내용	17
3. 해외 탐사 내용	21
4. 해외 전문가 인터뷰 내용	28
D. 탐사 결과	45
1. 탐사의 의의	45
2. 정책적 제언	46
III. 결론	49
A. 핵심 내용 요약	49
B. 연구의 의의	50
C. 후속 연구 방향 제시	51
부록	52
참고문헌	101

I. 서론

A. 탐사의 배경

급변하는 사회와 가속화된 발전이 생태계 및 공동체의 변화와 함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UNESCO는 ‘더 늦기 전에 모두가 이전과는 다른 가치와 태도를 갖추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공동의 의제를 발표해 왔다(UNESCO, 2020).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은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학습자들이 기후변화 대응, 다양성 존중, 불평등 해소와 같이 서로 연결된 글로벌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지식과 기술, 가치, 태도를 갖추도록 돕는 교육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실천 프로그램(2015-2019)’을 거쳐, 현재 ‘ESD for 2030(2020-2030)’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달성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2015년 제70차 UN총회는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인류 공동의 목표를 선포하면서, 2030년까지 함께 달성해야 할 17개의 SDGs를 설정하였다. 이 목표들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Leaving no one behind)’을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특히 그중 교육분야 목표(SDG4)인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과 17개 SDGs 전체의 달성을 위한 기반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또한 2022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으로의 개정에 중점을 두고, 그 세부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에 대한 대응 능력 및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교육부, 2021). 개정교육과정 도입 이후 이와 관련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실제적인 학교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는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교과 교육과정 내의 연계성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교과 및 융합 수업으로 확산할 방안이 필요하다(배주경 외, 2022).

본 탐사에서는 UNESCO가 주도하는 지구촌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국제 모범 실천 사례들을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이를 포용성과 형평 기반 SDGs 4의 핵심 가치인 생태주의, 문화다양성, 성평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가 탐사 지역의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미래 교육에 대한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B. 탐사의 필요성

본 탐사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모범 사례를 생태주의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성평등 교육으로 세분화하였다. 먼저 ‘생태주의 교육’은 그동안의 인류가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자연과 인간의 우열을 나누며 무분별하게 자연을 이용하고 착취해 온 현실을 반성하고 이를 반영하려는 교육의 흐름이다. 지구 생태계의 모습이 이제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에 다다른 현실 속에서, 생태주의 교육은 그동안 역사가 형성해 온 인간-자연의 지배-피지배 구조를 탈피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한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다양한 생태종이 생장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환경을 지녔으며, 정부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며 국민 또한 자신을 자연의 일부라고 여기는 생태감수성이 근본적으로 발달해왔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생태주의 교육을 유아기부터 시행하여 청소년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2년 개정판에서는 5세 이하 영아부터 환경 감수성과 지속가능성을 인식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하며 학습자들이 직접 환경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17-19). 반면 우리나라는 생태주의 교육과 관련해 다소 추상적인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실행하는데 교사들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생태주의 교육 모범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교육현장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나가며 해결책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주제인 ‘문화다양성 교육’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내용이다. 2024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약 2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며(법무부, 2024), 이주 배경 가정의 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교육통계서비스, 2024).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ESD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ESD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는 교육 목표를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감성, 창의성, 자기주도성을 기르고, 일상생활 속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인간 육성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른 공동체 역량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이주 배경 가정의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함께 학습하며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김예린, 2023). 본 탐사는 다문화 감수성 함양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국내 교육, 특별히 음악교육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구체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ESD 기반의 문화다양성 교육 분야에서 선진적인 사례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탐사에서는, 호주에선 이주 배경 학생들이 주류 교육 시스템에 통합되는 과정을, 뉴질랜드에선 마오리족의 이중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가 교육에 어떻게 조화롭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교육’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이자,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보다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서 필수적이다(UNESCO, 2015). 영국 연구에서는 여성과 소수집단이 음악교육에서 과소 대표되며 기관의 위계가 높을수록 이러한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보고했다(Bull et al., 2022). UNESCO는 SDGs 목표 4.7에서 성평등을 위시한 세계시민교육을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의 핵심 전략이자 국경을 넘나드는 현대적 도전과제 해결과 다른 SDGs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한다(UNESCO, 2016). 그러나 다양한 교육 정책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을 다루는 자료는 여전히 미흡하며, 빈곤이나 환경 문제의 부수적인 이슈 정도로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Marshall & Arnot, 2008). 따라서 성평등을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주제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접근법이 필요하다. 『SDGs와 함께하는 심화 탐구보고서』에서는 다양한 탐구활동 중 하나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창작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음악교과에서 예술을 활용한 창작활동은 자기주도성, 행위주체성을 발전시켜 SDGs의 핵심 가치를 효과적으로 습득하도록 할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여성 참정권, 원주민 권리, 젠더기반 폭력 예방 등으로 성평등 담론을 선도한 나라이며, 특히 뉴질랜드는 1893년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현대 뉴질랜드 교육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권리 신장을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기반이 되었다. 본 탐사는 성평등 교육을 선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방문해 실제 수업 현장에서 실천가능한 활동의 사례들을 습득함으로써, 한국의 미래교육에 발전적인 교육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준비, 설계, 실행, 분석, 정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2025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연구 준비 단계에는 국제기구 보고서, 정책 문서, 공식 발표 등 문헌 조사 및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탐사 주제를 설정하였다. 2025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연구 설계 단계에는 연구 주제의 이론적 배경을 수립하고 의도적 표본 추출 전략 중 결정적 사례를 통해 연구 대상을 선별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 인터뷰 등 국내 사전 탐사를 실시하였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연구 실행 단계에는 연구 도구인 인터뷰 질문지를 제작하였으며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거친 뒤 수정하여 최종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 현지를 방문해 연구 주제 관련 교육 기관 및 교육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2026년 1월 연구 분석 단계에는 질적 연구 분석 과정을 통해 인터뷰 내용을 주제에 맞게 분류하였다.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연구 정리 단계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해 정책 제안과 수업지도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II. 본론

A. 기존 연구

1. 기존 연구 분석 및 본 연구의 독창성

1)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음악교육

정진원·오지향·최은식·이수진(2025)은 음악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실천적 연계를 목적으로, 음악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성찰,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실천주의 음악교육 철학(Praxial Music Education)과 Mezirow의 변혁적 학습 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음악이 감성적 공감과 성찰을 촉진하고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교육적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연구진은 문헌 분석을 통해 이론적 근거를 정리한 뒤 도입, 탐구, 성찰 및 창의적 제안, 실천으로 구성된 4단계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음악교육 및 ESD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을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간단한 수업지도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모형은 본 연구에서 ESD 기반 음악 수업 산출물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참고 틀로 활용될 수 있다.

장근주·박영주(2024)는 음악 수업에서 ESD 실현의 가능성을 교육과정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 2015 개정과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ESD 요소 간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ESD와의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으며 특히 감상 영역에서 높은 연계성을 보였다. 이는 음악 교과가 기능 중심 교과를 넘어 사회적·문화적 책임을 다루는 시민성 교육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음악과 교육과정이 ESD 실천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ESD 기반 음악 수업 모형 개발과 해외 사례 비교 연구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Wilson, E. & Black, P. (2025)는 음악 및 예술교육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 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 해외 ESD 모범 사례 연구로, 국제 협업 음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이 기후 의식과 글로벌 시민성을 확장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협업적 자기성찰 연구(collaborative self-study) 방법을 적용하여, 스코틀랜드 애버딘과 호주 멜버른의 대학 음악교육 과정에서 운영된 국제 온라인 협업 프로젝트를 사례로 삼았다. 학습자들은 각 지역에서 경험한 환경 및 기후 문제를 영상 자료로 수집·편집하고 이를 토대로 음악을 창작하였으며, 지역의 생태적·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음악적 표현을 생성하고 상호 비교·성찰하는 경험을 하였다.

연구 결과, 이러한 국제 협업 음악 활동은 학습자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개인적·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였고, 협업 과정 자체가 글로벌 시민성 함양에 중요한 교육적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협업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음악교육의 공간적·문화적 제약을 완화하고, 국경을 넘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크다. 나아가 이 연구는 음악교육이 단순한 예술적 표현 활동을 넘어 비판적 성찰과 행동 지향적 학습을 촉진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효과적인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은 Wilson과 Black(2025)의 연구는 국제 협업 맥락 속에서 음악교육과 ESD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2) 생태주의 교육

최진경(2022)은 기후위기 시대의 교육은 기존의 환경교육을 넘어 생태주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생태주의 교육은 인간을 생태계의 중심에 두는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을 생태계의 일부이자 관계적 존재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실천적 음악교육을 생태주의 교육의 유효한 방법으로 제시하며, 음악의 체화적·실연적 경험을 통해 학습자가 세계와 관계 맺는 존재임을 실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천적 음악교육은 학생의 신체성과 감각, 공감을 바탕으로 생태적 감수성과 예술적 시민성을 동시에 확장할 가능성을 지닌다.

이가원(2025)은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음악 수업지도안을 개발하여, 음악교육과 생태주의 교육의 실제적 연계를 제시하였다. 사운드스케이프 활용 수업,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음악극 창작 활동 등은 학생들이 생태 문제를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도록 돕는다. 이 연구는 생태주의 교육이 음악교육을 통해 인식-표현-공유의 과정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실천적 연결 가능성을 제시한다.

Locke(2022)는 음악교육이 사회·정치적 쟁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생태 문해력(eco-literacy)을 감정적·사회적·생태적 지능이 통합된 역량으로 정의한다. 그는 음악 활동을 통해 모든 생명체에 대한 공감 능력과 공동체적 실천을 촉진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도록 하는 생태주의적 음악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역 환경 관찰, 사운드스케이프 작곡, 마오리 창조 신화를 활용한 학생 중심 음악 창작 사례는 음악교육에서 생태주의 교육이 실제 수업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는 생태주의 철학에 기반한 음악교육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연구·실천되어 온 해외 사례로서, 국내 음악교육의 생태주의적 접근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 문화다양성 교육

이정금·이병환(2020)은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교육정책을 분석하여 정책 운영의 한계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다양성 교육정책은 다문화교육과의 개념 혼용, 동화주의적 접근, 낮은 다문화 수용성, 일회성 사업 중심 운영이라

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문화다양성 교육 개념의 명확화, 정규 교육과정 내 문화다양성 교육의 제도화, 학교 안팎의 상호문화 교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문화다양성 교육이 정책 차원을 넘어 학교 교육 전반에 체계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인영(2024)은 뉴질랜드의 이중문화주의와 친환경 정책을 분석하여,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이 결합된 국가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뉴질랜드는 마오리 문화와 영국 정착민 문화를 국가 정체성의 중심에 두는 이중문화주의를 공식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민자 문화의 공존을 도모해 왔다. 특히 마오리인의 자연관과 환경 윤리를 존중하는 정책은 문화다양성과 생태적 가치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문화다양성 교육이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 역사적 성찰, 권력 관계 인식, 공존의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unn과 Locke(2022)는 뉴질랜드 초등 음악교육에서 토착 지식인 ‘마타우랑가 마오리’를 탐구 기반 음악 만들기 수업과 결합한 사례를 통해, 음악교육이 문화다양성·포용성·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비마오리계 교사가 마오리 세계관을 존중하며 수업을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은 자기성찰적 행동연구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학생들의 음악 창작 활동은 공동체와의 관계성, 자연과 환경에 대한 감수성, 문화적 정체성 인식을 통합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음악교육이 단순한 기능 습득을 넘어 토착 지식의 존중, 생태적 인식, 공동체 기반 학습을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해외 정책 및 교육 사례들은 문화다양성과 생태주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음악교육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국내 음악교육에서도 국가·지역의 맥락을 반영한 ESD 기반 수업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4) 성평등 교육

UNESCO(2025)의 GEM 보고서는 교육 참여 지표에서 성별 격차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기회·환경 차원의 구조적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함을 지적한다. 이는 성평등 교육이 단순한 성비 균형을 넘어 권리, 자원, 보호, 참여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성평등을 관계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교육적 가치로 정의한다. 국내 정책 연구들(최윤정 외, 2020; 백미연 외, 2024)은 학교 성평등 교육이 여전히 일회성 행사나 학교장 재량에 머물러 있음을 비판하며, 민주시민교육·인권교육과 연계한 체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동의(consent), 의사소통, 관계 윤리를 중심으로 한 존중 기반 교육이 효과적인 예방 교육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는 음악교육이 협력, 경청, 상호작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과라는 점에서 성평등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ANROWS의 Respectful Relationships Education 연구는 학교 교육이 성평등 가치 형성 과 성 기반 폭력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보고서는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시행된 Resilience, Rights and Respectful Relationships 프

로그그램을 분석하여, 존중·공감·권리 인식에 기반한 관계 중심 교육이 학생들의 성평등 태도 향상과 성적 괴롭힘 및 폭력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교사의 전문성, 민감한 주제에 대한 부담,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원 부족 등 실행상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하며, 성평등 교육이 단발적 지식 전달이 아닌 학교 문화 전반과 교사 연수, 또래 관계 맥락을 함께 고려한 장기적·체계적 접근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는 성평등 교육을 관계·존중·시민성 중심의 교육으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첫째, 음악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연계 연구가 이론적 논의나 수업 모형 제시에 주로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 연구들(정진원 외, 2025; 장근주·박영주, 2024)은 음악교육과 ESD의 연계 가능성과 교육과정 차원의 구조적 타당성을 제시해 왔으나, 실제 중·고등학교 음악 수업 현장에서 장기간 적용·검증된 실천 사례나 학습 효과에 대한 경험적 자료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로 인해 음악교육에서 ESD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실천 양상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다.

둘째, ESD의 핵심 가치인 생태주의, 문화다양성, 성평등을 각각 주제로 삼아 음악 수업에 적용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생태주의 음악교육(이가원, 2025; 최진경, 2022), 문화다양성 교육(이정금·이병환, 2020; 신인영, 2024), 성평등 교육(최윤정 외, 2020) 등 ESD의 개별 가치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들 가치를 각각의 수업 주제로 구분하여 음악 감상·비평·토론·창작 활동으로 구체화한 수업 지도안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해외 연구들(Wilson & Black, 2025; Dunn & Locke, 2022; Locke, 2022)은 국제 협업, 토착 지식, 생태 문해력 등을 중심으로 한 선진적이고 실천적인 음악교육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이 한국의 교육과정, 학교 문화, 평가 체제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다. 특히 제도적·문화적 맥락의 차이를 고려한 비판적 수용과 재해석의 과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넷째, 학생 참여를 중심으로 한 음악 감상·비평·창작·실천 활동으로의 확장이 제한적이다. 다수의 연구가 음악 감상이나 인식 변화 수준의 교육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이 음악을 통해 사회적·윤리적 쟁점을 비평하고 이를 창작과 실천으로 연결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음악교육이 여전히 ‘이해 중심’ 또는 ‘주제 연계형 수업’에 머무를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섯째, 교사의 실행 가능성과 평가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기존 연구들은 교사의 철학적 인식 전환과 전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 성취 수준 판단 방식, 교사 연수 및 지

원 체계에 대한 실천적 제안은 미흡한 편이다. 이로 인해 ESD 기반 음악 수업은 교사의 개인적 역량이나 의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계를 지닌다.

3. 본 연구의 독창성

첫째, 본 연구는 실제 수업 설계와 실행 중심의 접근을 시도한다. 기존 연구들이 ESD와 음악교육의 연계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논증하거나 교수·학습 모형 차원에서 제시하는 데 그쳤다면, 본 연구는 구체적인 수업지도안과 활동 설계를 통해 중·고등학교 음악 수업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실천적 사례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ESD가 추상적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의 실제 학습 경험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핵심 가치인 생태주의, 문화다양성, 성평등을 각각의 초점으로 구분하여 음악 수업 지도안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각 가치를 중심 주제로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음악 감상, 비평, 토론, 창작 활동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생태적 관점, 문화적 다양성, 성평등이라는 가치들을 서로 다른 음악적 맥락과 학습 경험 속에서 단계적으로 탐구하게 되며, 음악 수업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층적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적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국내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 맥락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해외 선진 사례 소개에서 더 나아가 국제 협업, 토착 지식, 생태 문해력 등 해외 연구에서 제시된 핵심 개념을 2015·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국내 학교 문화, 수업 여건에 맞게 재해석하여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음악 수업에서 학생 참여 중심의 음악 표현 활동을 강화한다. 학생들은 질문 생성, 토론, 창작 활동 등을 통해 음악을 매개로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사고하고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음악교육을 ‘지식 전달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주도의 비판적 사고와 실천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다섯째, 교사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수업 설계와 평가 방향 제시를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활동 예시와 단계별 수업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실제적 자료를 제공하며, 학생 참여 중심의 학습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함으로써 ESD 기반 음악 수업이 교사의 개인적 의지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보완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음악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통합을 이론-설계-실천의 층위에서 연결하고, 학생 참여와 비판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 음악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B. 탐사 방법

1.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의 필요성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핵심 가치인 생태주의, 문화다양성, 성평등을 음악교육과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이론적 논의, 교육과정 분석 또는 개별 가치 중심의 적용에 머물러 있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거나 다양한 교육적 맥락을 포괄하는 연구로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해외 연구 결과를 국내 음악교육 맥락에 직접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차이, 교육 환경과 수업 운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할 때, 단순한 문헌 고찰만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

첫째, 두 국가는 생태주의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성평등 교육을 교육정책 및 수업 실천의 중심 가치로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구현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호주의 Respectful Relationships Education과 같은 관계 중심 성평등 교육, 문화다양성 정책 기반의 음악교육 실천, 그리고 뉴질랜드의 마오리 토착 지식과 탐구 기반 음악 수업은 ESD와 음악교육의 결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선진 사례를 현지에서 조사하고 전문가들과 직접 대면·심층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교육적 실천의 구체적 매커니즘과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전문가 인터뷰는 국내 맥락에 맞는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해외 교육자와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개발·적용한 교수·학습 모형이 어떤 이론적 기반과 교육적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는지,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도전과 해결 전략이 존재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문헌 연구에서 확보된 이론적 논거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교육과정 적용의 현실적 제약과 교육적 가능성을 동시에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호주와 뉴질랜드의 서로 다른 교육정책 및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얻는 비교적 관점은 국내 음악교육의 ESD 적용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호주의 다문화 통합 정책, 관계 중심 성평등 교육, 그리고 뉴질랜드의 토착 지식 기반 음악교육은 교육적 목적, 교수법, 평가 방식에서 서로 다른 강점과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비교 분석은 국내 음악교육에서 ESD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맞춤형 설계 원리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학교 수업 사례 조사는 본 연구의 실천적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는 단순히 해외 우수 사례를 모방하는 차원을 넘어 국내 현실에 적합한 교육적 전략을 수립하고 그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며 지속가능한 음악교육 실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주와 뉴질랜드

의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해외 음악교육 현장의 실천 사례와 교육적 통찰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음악교육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 방안을 보다 정교하고 실천적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2.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의 기대효과

1) Cultural Infusion

Cultural Infusion은 호주의 문화다양성 교육 전문 기관이다. 해당 기관에 대한 탐사는 현지의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문화다양성 음악교육 발전을 위한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닌다. 첫째, Cultural Infusion이 유아교육기관과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음악 인커전(외부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교수·학습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음악을 매개로 한 상호문화적 이해 증진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Sound Infusion, Joko's World와 같은 디지털 기반 교육 자원이 문화다양성 음악교육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탐구하고, 한국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창작 중심 음악교육 모델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현장 예술가 및 교육자가 참여하는 외부 전문 인력 연계형 음악교육 모델이 학교 음악교육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는지 살펴보고, 한국 공교육 체제에서의 협력적·확장적 음악교육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넷째, Cultural Infusion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문화적 공감, 정체성 존중, 사회적 연결성 형성에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지니는지 분석하여, 한국의 문화다양성 음악교육 정책 및 수업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탐사는 호주의 실제 교육 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음악교육에서 문화다양성을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구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Enviroschools

Enviroschools(오클랜드 지부)는 지역사회와 학교, 학생이 함께 학습하고 실제 행동으로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교육 운동 기관이다. 토착 지식과 지역문화 존중을 기초로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학교 정원 조성, 지역 생태 모니터링, 커뮤니티 행사 등)를 통해 학습자 중심, 실천 중심의 역량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기관 방문을 통해 Enviroschools의 철학·운영체계와 오클랜드 현장의 통합적 실천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가 교과(특히 음악)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토착·다문화 맥락을 교육에 통합하는 절차와 교사 지원 체계, 성평등·포용성 확보 방식 등을 담당자 인터뷰와 현장 관찰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탐사 목적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 철학과 원리를 심층 이해하여 음악교육에 적용 가능한 이론적·교육적 기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 주도형 생태·문화 프로젝트의 실천 관찰 및 사례 수집을 통해 국내

적용 방안을 탐색하고 운영 과정과 산출물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교사 연수·평가 도구를 탐색하여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활성화를 위한 교사 교육의 방안을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장과 연계된 정책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Konini School

Konini School은 뉴질랜드 정부에서 진행하는 환경교육(Enviro Schools)인증제에서 우수 인증을 받은 생태주의 교육, 환경교육 기관의 모범학교이다. 환경교육 인증제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지리적, 환경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파악하는 인증제도이다. Konini School은 생태 보호 구역 내에 위치하며,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생태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이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여기는 인식을 내면화해왔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생태환경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이를 지속하기 위한 실용적 기술을 학습하도록 돕는다. 또한 이러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 교육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양질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본 방문의 목적은 Konini School에서 일상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ESD교육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이러한 교육의 설계과정(단위활동, 연간활동)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교사 개인의 교수특성 뿐 아니라 학교 차원의 철학과 구조를 직접 관찰하고 탐색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이 학생들의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의 관찰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탐사 과정은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철학과 실재를 구성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4) 멜버른대학교 Prof. Helen Cahill

Helen Cahill 교수는 멜버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청소년 발달, 사회정서학습(SEL), 회복탄력성 교육 및 관계·성평등 기반 예방교육을 연구·개발해 온 교육학자이다. 특히 빅토리아 주에서 추진해 온 Respectful Relationships Education(RRE) 및 RRRR(Resilience, Rights and Respectful Relationships)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 연구에 맞닿아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관계교육이 지속가능하게 실행되기 위한 조건을 ‘전학교적 접근(whole-school approach)’ 관점에서 분석해 왔다. 본 방문의 목적은 첫째, 빅토리아 RRE/RRRR의 최근 동향 속에서 전학교적 접근이 실제 현장에 어떻게 유지되고 조정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교사들이 성평등, 관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행할 때 겪는 정서적, 정치적, 교수적 부담을 완화하는 실행 요인을 자문 받는 데 있다. 또한 교수님의 ‘교과화’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성평등·관계 교육을 예술(특히 음악) 교과에 확장할 때 필요한 최소 설계 원칙과 주의점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맥락에서 성평등, 관계 교육을 프로그램 도입이 아니라 학교 시스템 내재화로 설계하기 위한 단계화 로드맵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예비, 현직교원 대상 연수 및 수업자료 개발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명료화할 수 있다. 셋째, 음악수업을 활용한 성평등·관계 교육 통합 모델의 근거를 강화하여, 최종적으로 정책 제안과 교

원교육 산출물의 설득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5) 멜버른대학교 Dr. Emily Wilson

Emily Wilson 박사는 멜버른대학교 교육대학원(Melbourn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에서 음악교육을 담당하는 수석 강사이며, 음악교사양성·디지털 협업 작곡·학생 참여 및 음악기술을 활용한 수업 설계 분야를 연구·교육하는 실천적 연구자이다. 그녀는 대학(교사교육) 수준과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등을 활용한 국제 협업 작곡 프로젝트를 설계·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Caring for Our Planet’ 등 기후·환경 주제와 음악교육을 결합한 협업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방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기반 국제 협업(온라인 공동작곡) 수업의 실제 운영 원리와 수업 설계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 기획 단계(주제 선정·그룹 구성), 기술적 수단(플랫폼·장비) 사용법, 저작권·윤리·학생 안전 관리 등 현장 운영의 세부 절차를 담당자 관점에서 자문받을 것이다. 둘째, 음악을 매개로 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통합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국제 협업 프로젝트 사례에서 드러난 기후·환경 주제의 교육적 전개를 어떻게 수업 목표·평가·성과물로 연결했는지 확인하여 국내 음악수업에 적용가능한 설계 원칙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교사 역량화(예비·현직) 관점의 실천적 권장사항을 확보하는 것이다. 교사 연수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디지털 기술 역량, 문화적 민감성(타문화·토착성 존중), 평가·성과확산 전략(커뮤니티 공유·포트폴리오 등)에 대한 우선순위와 실제 연수 디자인 팁을 자문받아, 한국 맥락에 맞춘 연수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멜버른대학교 Prof. Neryl Jeanneret

Neryl Jeanneret 교수는 멜버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예술교육 및 음악교육 분야를 이끌어 왔다. 해당 인물의 연구와 실천을 중심으로, 호주의 문화다양성·예술교육 정책과 음악교육의 연계 방식이 한국 음악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탐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Neryl Jeanneret 교수가 연구해 온 ‘음악교육과 예술교육에서의 학생 참여(student engagement)’와 창의적 학습 환경 조성 방식을 살펴보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습자들이 음악·예술을 통해 어떻게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예술가-학교-지역사회 협력 모델과 학교 안팎을 연결하는 예술교육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이 교실 수업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학습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셋째, Jeanneret 교수가 참여해 온 호주 및 국제 음악·예술교육 정책 개발과 리더십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결속을 음악교육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과 그 실행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유네스코(UNESCO)와 연계된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SDGs/ESD)을 위한 예술교육 담론이 실제 음악교육 연구와 교사교육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한국의 문화다양성 음악교육 및 교사교육 체계

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해당 인물과의 인터뷰를 통해 호주의 음악·예술교육 연구와 정책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음악교육에서 문화다양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교육적·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7) 오클랜드대학교 Dr. Millie Locke

Millie Locke 박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음악대학의 음악교육학자이다. 인터뷰를 통해 뉴질랜드의 문화다양성 및 이중문화(bicultural) 음악교육 실천과 이론이 한국 음악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탐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Millie Locke 박사가 연구해 온 이중문화 음악교육과 포용적 음악교육의 핵심 개념과 철학을 살펴보고, 특히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의 역사·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교육이 문화다양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오르프 접근법을 뉴질랜드 맥락에 맞게 재해석·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서구 중심 음악교육 방법론이 토착 문화와 만날 때 어떠한 교육적 전환이 가능한지 탐구하고, 한국 음악교육에서의 문화적 맥락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유아 및 초등교육 현장에서의 포용적·전인적 음악교육 실천, 그리고 장소성(sense of place), 생태문해성(ecoliteracy), 포스트휴머니즘과 같은 개념이 음악교육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모든 학습자의 공정한 음악교육 접근권과 문화적 정체성 존중을 중시하는 Millie Locke 박사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다양성 음악교육 수업 설계 및 교사 교육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당 인물과의 인터뷰를 통해 뉴질랜드의 문화다양성 음악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국내 음악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 탐사 내용 정리

1. 국내 탐사 내용

1) 미래음악교육학회 학술 세미나



그림 1 세미나/행사 현장 사진

과정 자체가 곧 인지라는 것이다. 음악은 학습의 과정 자체가 본질적으로 몸의 감각과 움직임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큰 설득력을 갖는 교과다. 체화인지는 ‘생명체가 세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생성하는 삶’의 과정으로서 세계, 공동체, 환경과 나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려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와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이번 학술 세미나의 발표자인 최진경 국민대학교 교수는 체화인지를 통한 생태주의 음악교육 연구를 여러 방면에서 이어오고 있다, 그녀는 포스트휴먼 생태주의 관점에서 음악 수업 모형을 감각하기, 상상하기, 참여하기, 채워가기 4단계로 구성하였다(최진경, 2025). 이는 음악수업을 ‘환경 주제 소개’를 넘어 학생이 몸으로 경험하여 관계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생태적 가치를 학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제 탐사 중에 이와 같은 체화 기반 학습 구조가 여러 장면에서 확인되었다. 멜버른대학교의 Helen Cahill 교수님과 동작으로 감각을 익히고 그 느낌을 언어화하여 의미 정리하는 활동을 실습함으로써 체화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

2)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이하 아태교육원)은 2000년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의 협정으로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세계시민 교육(GCED)과 국제이해교육(EIU)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아태교육원은 교육자들의 전문성 향상, 정책 연구, 국가 간 교사 교류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유네스코 교육 2030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UNESCAP, para.

2). 학습자가 불평등이나 차별, 폭력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시민교육이 핵심이다.

연구팀이 방문했을 때 1층의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청소년 대상 체험 공간으로, 모의 총회 참여나 난민 상황 체험, SDGs 관련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꾸며져 있었다. 직접 참여하면서 국제기구가 하는 일과 세계시민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체험관은 두 공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국제기구관에서는 모의 유네스코 총회를 체험한다. 참가자들은 여러 나라 대표가 되어 문화재 반환이나 난민, 식량 문제 등을 논의하고 결의안을 만들어본다. 국가 간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다. 세계시민관은 전시와 체험 활동 중심이다. 세계시민교육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본인이 어떤 유형의 세계시민인지 측정해볼 수 있다. 기린형(멀리 보기), 카멜레온형(공감하기), 코끼리형(소통하기), 돌고래형(민첩하게 행동하기) 같은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 ‘평화쓰기’ 코너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평화를 써보거나 엽서를 만들고, 슬로건 콜라주 작업도 해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체험도 마련되어 있다. 2015년부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이 목표들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쉽게 이해하고, ‘나만의 SDGs 스토리 만들기’, ‘SDG 18번을 찾아라!’ 같은 활동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APCEIU, 2026). 아태교육원은 이처럼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육자 대상 연구 및 훈련 세미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 확산에 힘쓰고 있다.

2. 국내 전문가 인터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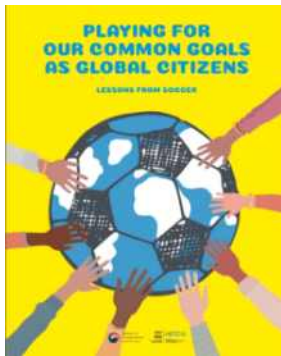
1) 김광현 박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팀은 아태교육원 대외협력홍보실장인 김광현 박사를 인터뷰했다. 김 박사는 아태교육원 설립 초기부터 세계시민교육 연구를 이어오면서 이론적 기반 구축과 실천 방안 마련에 참여해왔다. 최근 제26회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에서는 ‘능력주의와 교육 불평등-동아시아 중심으로’ 와 ‘SDG4.7 모니터링의 과제’ 를 주제로 발표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APCEIU,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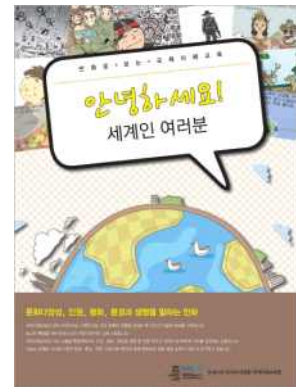
인터뷰를 통해 아태교육원의 설립 배경과 지난 25년간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추진을 위해 걸어온 주요 성과를 공유하였다. 또 교사 연수, 교육자료 개발, 청소년 프로그램, 국제교사 교류와 같은 아태교육원의 핵심 사업과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아태교육원은 세계 시민의식 교육을 추구라는 친숙한 주제에 접목함으로써 추상적이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을 전 세계 젊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출간하였다. 『Playing for Our Common Goals as Global Citizens: Lessons from Soccer』 은 축구를 매개로 차별, 기후 변화, 인권 등 세계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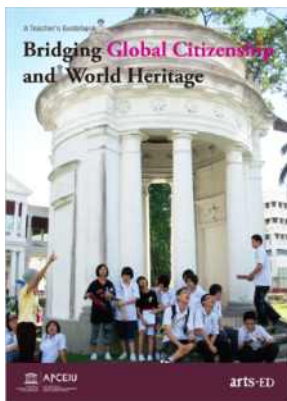
의식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설명한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축구에 내재된 연대와 협력과 같은 경쟁을 초월하는 가치들을 다시금 일깨워주게 하도록 돕는다. 또, 만화로 보는 국제이해교육 『안녕하세요 세계인 여러분』, ‘Go! Global Citizens!’ 모바일 학습 콘텐츠, ‘Changers’ 보드게임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초중학생이 재미와 호기심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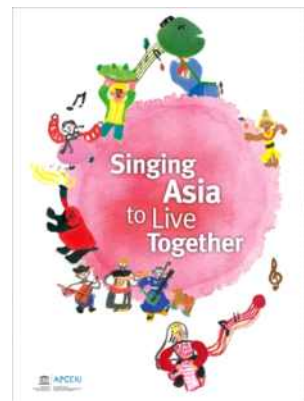
(출처: APCEIU)



더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사들이 문화다양성 교육 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교사용 참고서를 개발해 왔다.



(출처: APCEIU)



예술 및 문화 교육을 위한 비영리 단체인 Arts-ED과 협력하여 『Bridging Global Citizenship and World Heritage』을 발간하였다. 레이스아의 세계문화유산과 GCED에 대한 문헌 자료뿐만 아니라, 사례 연구와 수업 계획을 제공하여 교사들이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GCED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지리적 상상력으로 세계시민되기』는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이 신설되면서 다양한 지형과 지리 공간에서 발전해 온 인간 삶을 인구, 이주, 식량, 기후, 환경, 지정학적 갈등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

또 『Singing Asia to Live Together』라는 음악교육 안내서 또한 개발하였는데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의 초등학교에서 불린 35곡의 다양한 노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악보, 현지어 가사, 음악의 사회 역사적 및 지리적 배경, 학생 활동 자료 등이 함께 제공되고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악 DVD도 포함되어 있다. 이 출판물과 멀티미디어 자료는 다양한 문화다양성 학습 활동을 장려하고 학생들이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음악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광현 박사님은 예술이 학습자의 정서적 공감과 상상력을 촉발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과 타자 이해를 함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인터뷰는 분열과 극단이 심화되는 시대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의 가치와 실천을 재조명하며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국제이해교육·세계시민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이 축적해 온 철학적 기반과 역사적 전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국내 담론에서 해당 교육들이 현재 어떤 위치와 과제를 갖는지를 정리할 수 있었다. 또 국내 담론에서 통용되어 온 ‘다문화 교육’은 경우에 따라 동화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으므로, 동등한 상호 교류와 학습자의 문화적 자긍심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다문화’보다 ‘문화다양성’의 용어 전환이 논의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다문화’보다 ‘문화다양성’으로 개념을 수정하고 정리하였다.

2) 신지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현지 탐사에 앞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지도 교수이자 미래음악교육학회 국제교류위원장인 신지혜 교수와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초점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음악교육이 ESD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1) 음악교육 현장에서의 ESD와 발전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생태전환교육을 전면에 내세우며 모든 교과가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를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것이 사회과나 지리과 중심으로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었고 음악 교과의 경우 환경 주제 노래 창작과 같은 표면적 활동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 음악을 단순히 환경 메시지의 전달 매체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하였다. 음악 교과 고유의 교육적 본질을 견지하면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학습자가 체화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음악적 경험 그 자체가 타인, 환경,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도록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2) 해외 탐사 자료의 해석과 국내 적용 관점

해외 사례 관찰 시 주의점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프로그램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

지, 배경은 어떠한 것인지, 왜 성공적인지, 왜 실패했는지 등 그 이면에 담겨진 의미를 찾아내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 나라의 문화적 배경, 교육의 역사, 교육 환경, 교육 체계, 학습자의 특성 등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 사례를 한국에 무작정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관 전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교육적 배경에 대한 사전 학습이 필요하며, 그 이해의 깊이에 따라서 질문의 수준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장 관찰 시에도 객관적인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3) 개념적 프레임워크와 교사교육·정책 논의로의 연결

음악교육의 ESD 정책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음악교육에서의 ESD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의 도출을 제시했다. UNESCO가 개발한 프레임워크가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음악교육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년별, 단계별 개념과 성취기준처럼 ESD가 음악교육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연구에 따르면, 거의 80%에 가까운 현장 교사들이 생태전환교육을 음악교과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 음악교사들의 역량 부족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이에 프레임워크 개발 이후 이를 주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교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4) 본 탐사에서 정리한 적용점

국내 전문가의 서면 응답을 토대로, 본 탐사에서는 ESD를 음악수업에 연결하는 방식에서 ‘음악이 수단화되지 않도록’ 서술과 설계를 함께 점검하였다. 즉, 음악이 목표 밖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을 경계하기보다, 음악교육의 고유 목표를 유지한 상태에서 학생이 관계, 책임, 공존의 문제를 경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설계 언어를 우선 정리하였다. 또 해외 사례 탐사 과정에서 활동의 형태를 수집하기보다 해당 실천이 가능했던 조건을 함께 기록하는 방식으로 관찰 틀과 변안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해외 사례 관찰 및 국내 적용 점검 항목		
연번	항목	세부 내용
1	목적과 가치	이 사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한국 상황에서도 동일한 문제와 가치로 받아들여지는가?
		한국 교육 맥락에서 이 가치를 설명할 때 다르게 해석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2	교육과정	해당 사례는 어떤 교과나 영역에 속하는가? (정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등)
		한국 교육과정 구조상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가?
		성취기준이나 평가 요소와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가?
3	학습자 조건	대상 학년이나 발달 단계가 한국과 유사한가?
		활동의 수준, 언어 사용, 소요 시간을 한국 학생들에게 맞게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4	교사 역할·역량	이 프로그램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교사를 위한 연수나 자료, 지원 체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
5	운영 조건	어떤 장소와 환경에서 실행되는가? (야외 활동, 지역사회 연계, 특수 시설 활용 등)
		필요한 예산 규모, 교구나 자료, 안전 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한국의 학교 여건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해외·국내 탐사에서 확보한 이론적 논의와 현장 사례, 인터뷰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축적함으로써 향후 음악교육 맥락의 ESD 프레임워크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 이는 음악교과에서 ESD가 성립하기 위한 설계 원리와 실행 조건을 정리하여 이후 프레임워크 개발과 교사 지원 체계 논의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3. 해외 탐사 내용

1) Melbourne 이민 박물관

2026년 1월 9일, 연구팀은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이민박물관(Immigration Museum, Museums Victoria)을 방문하였다. 박물관 입구에는 이 공간이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고, 안전하며,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도 차별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환대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민, 정체성, 공존을 다루는 공간의 태도를 먼저 정돈해 주었다.

기후·재난·분쟁 등 이동을 낳는 세계의 장면을 담은 영상을 시청했는데 이는 이동이 개인의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며 이주가 생존 조건과 국제 정세, 불평등한 자원 환경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정착의 국면에서 눈에 띈 것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국가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박물관의 서사는 정착을 가능하게 만든 제도와 사회적 지원의 기반을 여러 시기의 섹션으로 구성하였다. 여러 예시 중 국가 차원의 교육·교류 프로그램인 콜롬보 플랜은 1951년 설립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교류하였고 이민과 유학, 그리고 정착의 경로를 이해하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두 번째 예시로, 호주 정부가 AMEP와 같이 이주민의 언어 적응을 공적 과제로 다루어 온 흐름은 ‘정착 지원’이 정책의 영역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주민을 ‘새로운 시민’으로 연결해주는 공적 기반이 되었다. 한편 인물 서사로는 Caroline Chisholm과 같이 이주 초기 취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거처, 일자리, 보호망을 조직했던 사례가 제시되어 정착이 제도뿐 아니라 돌봄과 시민적 연대의 역사임을 확인했다.

이민국가로서 2세기 동안의 역사를 가진 호주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이민과 국가 정체성(Immigration and National Identity)

-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고 있는가?
 - 호주는 영국 문화의 남반구 전초기지인가?
아니면 아시아와 태평양에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 ‘전형적인 호주인’이 존재하는가?
혹은 ‘전형’이라는 발상 자체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가?
 - 이민의 역사와 국가 건설의 서사와
원주민 식민화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함께 다룰 수 있는가?
 - 국가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여러 문화적 정체성을 포괄할 수 있는가?
‘하나의’ 국가 정체성은 과연 가능한가, 또는 바람직한가?
-

연구팀은 이 대목을 따라가며 이민 정책이 정착을 돕는 제도인 동시에 국가 정체성을 재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함을 알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의 정책 연표에는 ‘다문

화주의'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이민 정책의 문법 자체를 바꾼 사건이었음을 보여주었다. 1973년 이후에는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이민 신청이 가능해지며 제도가 확장되었지만 동시에 전체 이민 규모는 줄어드는 양상이 함께 제시되었다. 즉 현대의 이민 담론 속에는 더 개방되어 더 많이 수용하는 것이 조정되고 있다. 정부와 이해집단의 국가상과 실제 이민자 수용 기준과 우선순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결과 정책은 특정 국적과 문화에 대한 선호를 통해 수용과 배제의 경계를 만들기도 한다. 이민은 곧 “누가 시민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도 안에 새겨온 역사였다.



호주는 서로 다른 배경의 시민들이 존중과 이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Harmony Day를 지정하였다. 호주는 이렇게 정책, 미디어, 시민 문화에 맞물려 있으며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고자 꾸준히 움직이고 있다.

2) Enviroschool Auckland 지부

Enviroschools는 지속가능성 프로젝트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뉴질랜드의 생태주의 관점의 지속가능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2026년 1월 29일 기준에서 파악한 참여학교 수는 유아교육기관 106곳, 중등·고등학교는 248곳이다. 오클랜드 지역의 Enviroschools는 사회적 투자수익(Social Return on Investment)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Mana Ora Youth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 제공되는 추가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핵심 원리는 환경교육을 지식 전달 차원에서 끝내지 않고, 관계, 윤리, 정체성, 권한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궁극적 목표는 환경(taiao)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학생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변화를 이끄는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

가치	교육적 함의
Empowered Learners 주도적 학습자	학습자의 창의성, 관점, 질문을 존중하며 공동체 참여를 유도한다. 학생들은 환경(taiao)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며 서로 지지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낸다. 환경을 인간 외부 대상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 생명의 그물망으로 보고, 자연과의 관계를 학습 중심에 둔다.
Respect for Diversity 다양성 존중	모든 정체성과 능력을 존중해 공정하고 평화로운 협력 사회를 만든다는 원칙이다. 모든 이의 문화적 전통과 실천이 학습 공간에서 경험되고 인정받도록 한다. 안전하고 의미 있는 학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Sustainable Communities 지속가능한 공동체	지속가능성 학습을 우리 존재 전체가 참여하는 총체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접근으로 정의한다. 학습을 단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온전한 참여와 실천 과정으로 보며, 감정·신체·관계를 포괄하는 총체적 경험으로 이해한다.
Honouring Te Ao Māori 마오리 세계관 존중	테 아오 마오리에는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통찰과 지식, 존재 방식이 담겨 있다. 이 땅 원주민(tangata whenua)과의 본질적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천할 때 지역 하푸(hapū)의 역사, 지식, 티강가(tikanga), 전통이 길잡이가 된다. 토착 지식은 참고 자료가 아닌 우선 존중해야 할 기준이자 나침반이다.
Learning for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을 위한 학습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사람 포함 자연의 모든 측면을 현재와 미래에 보살피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EnviroSchools는 협력하고 서로 지원하며 회복력 있고 건강하며 공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강조한다.

표 3 EnviroSchools의 Guiding Principles 요약 (번역·재구성)

다섯 원리가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다. 학생을 수동적 학습자가 아닌 능동적 변화의 주체로 위치시키고, 배움을 실천 및 미래 책임과 연결하며, 그 방향성을 지역의 토착 역사, 관계, 규범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교육 과정과 결과에는 포용성, 공정성, 안전이 내재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현재와 미래 세대, 그리고 자연 전체를 돌볼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여기서 사용된 마오리 용어들은 환경교육의 가치와 실천 기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taiao는 단순히 자연이나 환경을 넘어 자연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간-공동체-생태가 얽혀 있는 관계적 세계를 의미한다. tangata whenua는 특정 지역에 대한 역사적·윤리적 관계와 책임을 지닌 주체를 뜻하며, 정당성의 문제까지 함의한다. tikanga는 올바른 절차, 관습, 규범을 의미하며 절차적 윤리를 강조한다. hapū는 전통 마오리 사회의 핵심 정치·사회 단위인 친족 기반 공동체를 지칭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추상적 범주가 아닌 구체적인 관계망과 책임의 단위를 드러낸다.

본 연구팀은 현장 담당자와 함께 오클랜드 도심 Myers 공원에 설치된 공공예술 작품 Waimahara를 방문하였다. ‘물의 기억’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작품은 현재 지하로 흐르는 Queen Street 계곡 하천 Te Waihorotiu의 존재를 빛과 소리로 표현한 것이

다. 설치물은 관람자의 움직임, 날씨, 주변 환경에 반응하며 물이 지닌 의미와 장소가 간직한 기억을 다층적으로 체감하게 한다.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요소는 작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낮은 공명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지하에 숨겨진 물길의 존재를 청각적으로 환기했고 이 장소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들과 문화적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연구팀은 인터뷰이와 함께 아리랑을 불러보며 음악이 장소의 기억을 소환하는 방식을 직접 체험하였다. 마오리 세계관에서 장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모든 생명을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관계 속에서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Waimahara는 이러한 철학을 구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3) Konini School

Konini School은 2020년 Green-Gold 인증을 획득한 Enviro School로, 약 8.5헥타르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학교 건물은 전체 부지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공간은 토착 수림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숲 속으로 들어서자 방학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아동들의 모습이 관찰되었다. 일부 아동들은 자연에서 채집한 나무 가지를 지팡이로 활용하며 숲길을 걷고 있었다. 학교 시설보다 숲이 훨씬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 이곳 학생들은 교실 밖 자연환경에서 일상적으로 학습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장소 기반(place-based) 학습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이였다.

Konini School은 마오리 전통 가치인 Kaitiakitanga(수호), Manaakitanga(존중), Mātauranga(지혜), Whanaungatanga(유대)를 교육 철학의 중심에 두고 있다. 숲에서 자연물을 활용하여 놀이하는 아동들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가치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내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성 의식, 공동체 윤리, 가족적 유대감이 이 학교 문화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림 16 Kōnini School 핵심가치

핵심가치	해석
<p>Kaitiakitanga (수호자 정신) “우리는 사람과 환경의 수호자이다.” 마오리 격언: 땅은 남고 사람은 사라진다.</p>	<p>보호와 돌봄의 책임을 강조한다.</p>
<p>Manaakitanga (환대) “우리는 친절과 연민을 보이며 존중을 실천한다.” 마오리 격언: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돌아온다.</p>	<p>배려와 존중의 태도를 의미한다.</p>
<p>Mātauranga (지혜) “우리는 배우고, 나누며, 함께 성장한다.” 마오리 격언: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라.</p>	<p>지식을 개인의 소유가 아닌 관계 속에서 순환하며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고, 협력적이고 반성적이며 공동의 성장을 강조한다.</p>
<p>Whanaungatanga (유대) “우리는 모두 Konini 공동체의 가족이다.” 마오리 격언: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p>	<p>사랑과 협력에 기반한 소속감이자 정체성의 근거를 의미한다.</p>

표 4 Kōnini School 핵심 가치 요약(번역·재구성)



Konini School 현장 인터뷰에서 Andrew Ducat 교장은 학교 공동체의 대표 상징물인 Te Pou로 학교의 가치와 민족적 서사를 설명하였다.

(Andrew Ducat, 교장, 학교 견학, 2026.01.12., Konini School)

- ① Te Kawerau a maki: 맨 위에는 Te Kawerau ā Maki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저희 학교 가치인 Mātauranga(지혜·조상 지식·지식 나눔)를 상징하며, 전승에서는 Tāmaki Makaurau(오uckland)가 정착에 좋은 곳을 알아본 인물로 소개됩니다. 또한 그는 kete(엮은 가방)를 들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kawerau를 '가방을 메고 운반할 때 쓰는 끈(스트랩)'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즉 kumara(고구마) 가방을 나르는 끈을 뜻하기도 하고, 더 넓게는 공동체(iwi)를 지탱하고 함께 메고 간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② Mātahu: Te Kawerau ā Maki 바로 아래에는 그의 남동생 Mātahu가 있으며, 유명한 전사로 전해집니다.
- ③ Te au o te whenua: 그리고 가장 아래(바닥 부분)에는 Te au o te whenua가 자리합니다. 그는 Maki의 후손으로, 이야기 속에서 초점은 오직 사람들의 이익과 공동체의 평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Ngāpuhi의 세 iwi, Ngāti Whātua, 그리고 Te Kawerau ā Maki 사이의 갈등을 멈추기 위해 노력한 인물로 설명됩니다. Te au o te whenua는 '땅의 흐름'을 뜻하며, 저희 학교 가치인 whanaungatanga—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사람을 하나로 모으며, 관계를 세워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종합하면, Te Pou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 해석의 기준점으로 기능한다. 특히 상징(Te Pou)의 가치(Mātauranga, whanaungatanga)는 공동체의 이야기가 한 축으로 정렬되면서, 비전과 운영 계획이 분절되지 않고 동일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구조를 형성케 하여 효과적이다. 이러한 ‘가치-상징-실천’의 정렬은 2024-2026 전략 계획(학습(Ak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략 계획은 학습(Ako), 환경(Taiao), 문화(Ahurea)의 세 영역에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실제 운영 과제로 번역하는 방식이다.

2024-2026 전략계획		
영역	목표	세부 계획
Ako(학습)	창의적인 학습자 역량 강화	혁신적 교육과정 제공, 창의적 심화 학습, 맞춤형 지원
Taiao(환경)	지속가능 실천의 일상화	카이티아키 복원 프로젝트 참여, 탄소저감 실행
Ahurea(문화)	포용적 학교문화 조성	복지 지원, 가족/지역사회 협력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감 있고 역량 있는 학습자로 성장하고, 카이티아키(보호) 및 시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주도성을 향상하고, 학교의 가치를 전 사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Enviro School의 학습자 중심 교육,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학습, 문화의 다양성 존중하는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학교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해외 전문가 인터뷰 내용

해외 전문가 인터뷰 내용에 대한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 후 진행하였으며 면담 내용을 분석 하고 코딩하였다. 연구자는 사전질문지, 인터뷰 전사, 인터뷰이로부터 제공된 자료 등을 수집하였고 분석을 기반으로 34쪽에 이르는 면담 전사 자료와 인터뷰이로부터 제공된 200쪽의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개방 코딩, 축 코딩, 초점 코딩 과정을 거쳤다.

개방 코딩을 통해 상위 범주는 생태주의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성평등 교육으로 분류하고 질문별 하위 범주는 답변의 성격에 따라 음악교육, 교사교육, 교육방법, 정책제안으로 작업하였다.

상위범주 - 인터뷰이, 기관의 주 분야		
생태주의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성평등교육

하위범주 - 답변 내용에 따른 분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음악교육 (필요성, 강점, 역할)	교사교육
교육방법 (설계 원리, 사례)	정책 제안

전사 자료 중에서 연구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를 추출하고 유사 내용끼리 묶은 다음, 이후 개방 코딩 자료를 귀납적 과정을 통해 범주와 하위 속성으로 재분류하면서 다시 범주화하였다. 우선 개방 코딩 과정에서는 이후 범주화된 자료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고 범주가 범주에 속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지 또는 반대로 범주에 속한 내용이 해당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분석 결과를 원자료와 다시 비교하면서 범주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함께 수행하였다. 전체적인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연구 참여자 및 공동 연구진과의 다각적인 교차 검토를 거쳤다.

1) 생태주의 교육

(1) Andrew Ducat, Gill Aldworth (Konini School)

Konini School은 Enviroschools 기반의 전교적 지속가능성 실천을 통해, 생태주의 교육을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전반에 내재화한 오클랜드 사례학교이다. Konini School의 Andrew Ducat 교장은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및 문화의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며, 학교 이사회(Board of Trustees) 구성원으로도 함께하고 있다. Gill Aldworth는 Konini School에서 환경·예술 담당 교사이며 환경, 문화, 자원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Kaitiaki(관리자, 보호자) 역할을 하는 전문 교사다. 또 그녀는 뉴질랜드 교육과정 부서에서 교사 역량 강화를 시키는 문해력 코치(literacy couch)로서 활동하고 있다. 교사들이 자신의 실천을 알릴 수 있도록 탐구 과정으로서 매우 긴밀하게 교사를 교육하고 있다. 문해력 코치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더 정교화하는 것에 주목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 n.d.)

[교육방법]

인터뷰에서 두 참여자는 생태주의 교육을 별도의 환경 주제 수업으로 분리하기보다,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 운영과 학습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학교의 물리적 환경과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교육과정에 통합한 사례들을 설명하였다. 아래는 Konini School에서 실행 중인 운영 및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방법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학교 내 쓰레기통을 별도로 비치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한다. 학생들은 본인이 발생시킨 쓰레기를 가정으로 다시 가져가야 하며, 이를 통해 쓰레기 처리 과정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을 스스로 줄이도록 유도한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를 생분해 과정을 거쳐 학생 개인 텃밭의 거름과 퇴비로 활용하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자연 친화적 방식으로 식물을 돌보는 경험을 하며, 자신의 텃밭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셋째, 학교 뒤편의 숲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장소 기반 학습을 진행한다. 예컨대 버려진 파이프나 고무관 같은 재활용 재료를 이용한 놀이 활동이 대표적 사례이다.

위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학교 운영의 규칙과 공간을 통해 학생의 선택을 조직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폐기(쓰레기), 순환(퇴비 및 정원), 장소성(숲과 복원)이라는 세 축이 일상에 녹아있어 학생은 환경 윤리를 행동의 결과로 경험한다. 실제로 학교의 뉴스레터에 무폐기 점심, 공동체 식재, 다양한 환경 동아리 운영 등 가정, 지역과 연결된 실천을 반복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실천은 넓은 부지와 수림 등 물리적 조건에 의해 강화되므로, 한국의 도시 학교에서는 동일한 원리라 하더라도 한국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조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학생들을 데리고 자연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연을 교실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됩니다. 이파리와 가지, 돌멩이 등 작은 것들로 환경 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학교 주변에는 어떤 나무가 있는지, 어떤 꽃이 피고 어떤 개천이 있는지, 가까운 자연을 찾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시의 환경에서 도시의 소리를 활용한 사운드 스케이프 등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Gill Aldworth, 예술 교사, 인터뷰, 2026.01.12., Konini School)

교장의 학교 운영 차원의 설명과 담당교사의 수업·활동 차원의 설명을 다각적으

로 수집함으로써, Konini School은 지속가능성을 전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Susan Hutchinson-Dainel (Enviroschools)

Susan Hutchinson-Dainel은 오클랜드 시의회(Auckland Council) 산하 지속가능학교팀(Sustainable Schools Team)의 선임 자문위원이자 Enviroschools 오클랜드 지역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주요 업무는 관할 지역 내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의 Enviroschools 참여를 지원하고 현장 실행을 돕는 것이다. 지역 운영 체계와 학교 현장에 축적된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교사와 학생의 지속가능성 교육이 지역 맥락 속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반 지원을 제공해 왔다. 본 연구팀은 Hutchinson-Dainel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관 차원에서 전교적 지속가능성(whole-school sustainability)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핵심 원리를 파악하고, 학교 문화 및 교육과정에 통합되는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교육방법]

Hutchinson-Dainel은 Enviroschools의 지역 운영 체계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실천으로 이어질 때 핵심이 되는 요소로 ‘행동학습 순환의 창의적 나선(Action Learning Spiral)’을 제시하였다. Enviroschools의 생태적 접근 방식은 학생 주도의 탐구, 의사결정, 실천, 성찰이 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순환이 반복됨으로써 지속가능성 실천이 학교 문화와 교육과정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었다. 본 연구팀은 Hutchinson-Dainel의 설명을 토대로 Enviroschools의 교육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THE CREATIVE SPIRAL OF THE ACTION LEARNING CYCLE



그림 18 Action Learning Cycle framework (주. Robbe (2023)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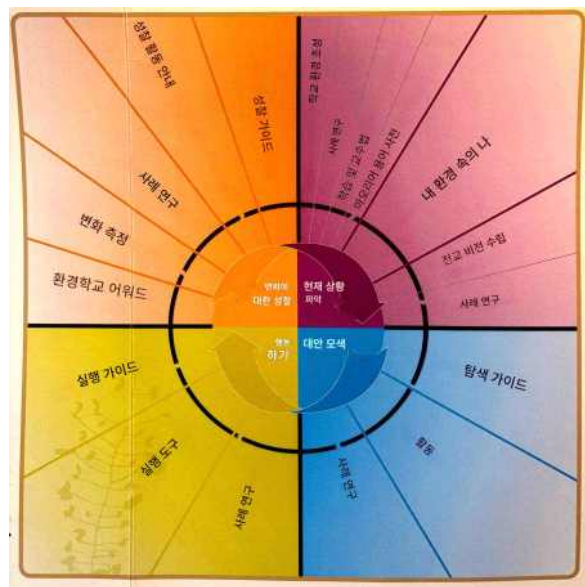


그림 19 Action Learning Cycle 개념도 (번역)

Enviroschools에서 활용하는 행동학습 나선은 개인, 집단, 조직이 학습하고 건설적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간명한 틀이다. 이 틀은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실천가들은 행동학습 나선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보다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일상과 업무 속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이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실천가는 이해와 경험을 심화하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접근 방식을 평가하며 재설계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 창의적 나선은 행동(Action), 경험(Experience), 성찰(Reflection), 분석(Analysis), 계획(Planning)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 습관적 반복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비영리 활동가 학교 엣지, 2025).

Enviroschools는 학교 현장에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키트를 제공한다.

단계	핵심 활동	교육적 함의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현황 진단	학교 운영·공간·관행·학습에서 지금 무엇이 벌어지는지 학생이 직접 조사하고 진단한다.	환경문제를 학습이 아니라 학교라는 시스템을 연구 대상으로 전환한다. 이는 학생이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다.
Explore alternatives 대안 탐색	가능한 해결 경로 조사, 사례 비교, 이해관계자 (교사, 시설, 가정, 지역) 관점 수집	‘정답 찾기’가 아니라 지역 맥락 기반의 우선순위, 실행가능성을 협상한다.
Take action 실행 설계·실천	실행 계획(역할·일정·자원·의사결정) 수립 후 실제 프로젝트 수행	캠페인이 아니라 학생이 의사결정과 설계를 포함해 실행한다.
Reflect on change 변화를 성찰하는 순환	자기평가 지표와 관찰 피드백으로 변화를 추적하고 개선점을 도출한다.	결과보다 학습, 변화의 인과를 되짚는 과정중심평가를 진행한다.

표 7 Enviro School kit (번역·재구성)

Hutchinson-Dainel은 학생들의 생태적 인식과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프로젝트 기획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활동 이후에는 평가와 성찰을 통해 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이러한 실행 학습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시키는 교사의 역할과 지역사회 기반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교사교육]

오uckland 지역의 청소년들은 참여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지역 이사회 수준에서 지방정부 대표자들에게 제안하고 발표하는 경험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경험은 학교 내외의 지지 구조가 존재할 때 확장될 수 있다. 참여형 학습과 학생 주도 프로젝트에서 교사 및 지역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사 연수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교사가 자연 세계를 교실로 삼아 야외로 학습을 확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소리나 냄새 등 감각 정보와 함께 식물과 동물의 생물다양성, 더 넓은 생명 세계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

이 원리를 한국 교육 맥락에서 음악교육에 적용해 보면, 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미적 경험, 음악 창작, 사회적 소통, 문화적 이해를 축으로 구성할 수 있다. EnviroSchools은 음악, 춤, 언어와 같은 예술이 청소년의 비전을 표현하도록 돕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주체성(agency)과 상상력, 타자와의 소통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의 리더십에 필요한 자질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음악 교사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주제 전달’로 한정하기보다 학습자가 감각과 정서를 동원해 의미를 구성하고 공동체 안에서 표현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설계하는 역량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악단광칠(ADG7)과 같이 전통 악기에 대한 대중성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여 전달하는 사례는 학생이 문화적 자원을 학습의 재료로 삼아 참여하도록 돕는 하나의 접근으로 참고할 수 있다고 소개해 주었다.

[정책 제안]

다만 이러한 참여형 학습과 야외 기반 실천은 개별 교사의 의지에만 의존할 경우 지속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EnviroSchools가 강조하는 지원 조건을 정책 차원에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 코디네이션과 네트워크 기반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는 단일 기관으로서 모든 전문성과 자원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전문가 및 학교 간 사례가 공유되고 환경이 보완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무엇을’과 ‘어떻게’를 동시에 제공하는 실행 가능한 자료와 도구를 축적하고 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도구의 종류로는 키트, 단계별 가이드, 사례집, 평가·성찰 도구 등이 있다. 이는 교사가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부담을 경감시키며, 실행의 질을 안정화하는 기반이 된다.

셋째, 시간, 역할, 파트너십을 포함한 운영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사가 야외 학습과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기획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창구, 그리고 학교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이 결합될 때, 실행 학습의 순환이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다.

2) 문화다양성 교육

(1) Neryl Jeanneret (The University of Melbourne)

Neryl Jeanneret(멜버른대학교)은 문화다양성 교육과 탈식민화(decolonisation) 관점에서 학교 음악교육이 무엇을 ‘정당한 음악과 지식’으로 인정해 왔는지 점검하고 학생들이 음악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pathways)를 교육적으로 가시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온 연구자다. 본 인터뷰에서는 음악교육의 공공재로서의 역할, 전인교

육(whole child education) 관점에서의 학교 음악교육, 그리고 예술가, 학교, 지역사회 협력 구조가 문화다양성 음악교육에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음악교육]

그녀가 제시한 ‘Pathways in Music Education’ 도식은 학생의 음악적 참여가 참여형(participation)과 발표형(presentation)이라는 상이한 양식 사이를 오가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이 음악을 배우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연주자(performer)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작자(creator), 탐구자(investigator), 청취자(listener)로 확장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학교 음악의 ‘목적지(destination)’는 전문 영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동체(community) 참여와 같은 다양한 지향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경로 역시 대학(university)뿐 아니라 TAFE, 민간 제공자, 비형식·비공식 음악 만들기 등 복수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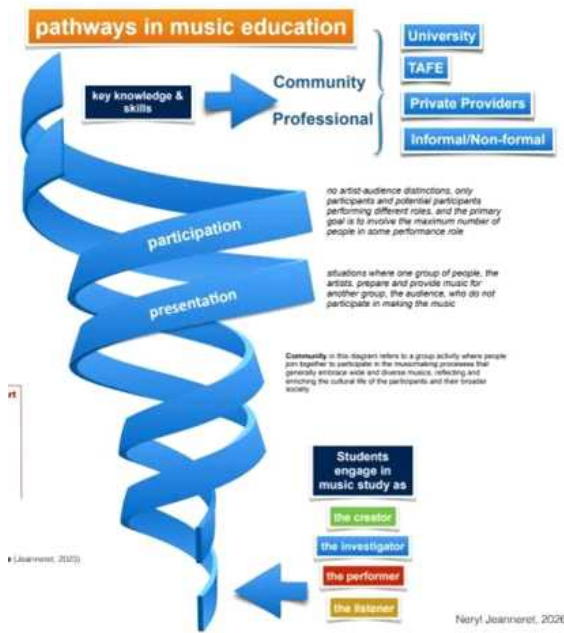


그림 20 Pathways in Music Education(도식)
주. Jeanneret, 2026

Pathways in Music Education 이해하기

- ▶ 출발점: 학생의 ‘음악적 참여’
 - 참여형, 공동으로 음악 만들기
 - 발표형, 연주 발표하기
- ▶ 학생의 역할 4가지: 학생은 ‘연주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창작자, 탐구자, 청취자로서도 참여함
- ▶ 잠재적 목표: 학교 음악의 목적지는 전문 연주자 양성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공동체 참여와 전문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지향을 포괄함
- ▶ 경로: 대학뿐만 아니라 TAFE, 민간 제공자, 비형식적 음악 만들기 등 복수의 경로가 존재함.

이 틀은 음악교육을 공공재(public good)로 보는 관점과 직접 연결된다. 학교 음악을 개인의 성취 중심으로만 설계할 경우, 음악 경험은 특정 학생에게 유리하게 배분될 위험이 커진다. 반면 Pathways 관점에서는 학교 음악이 모든 학생의 접근성을 확장하고 ‘가능한 음악적 미래’를 넓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즉, 우수성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 방식과 공동체 참여를 잠재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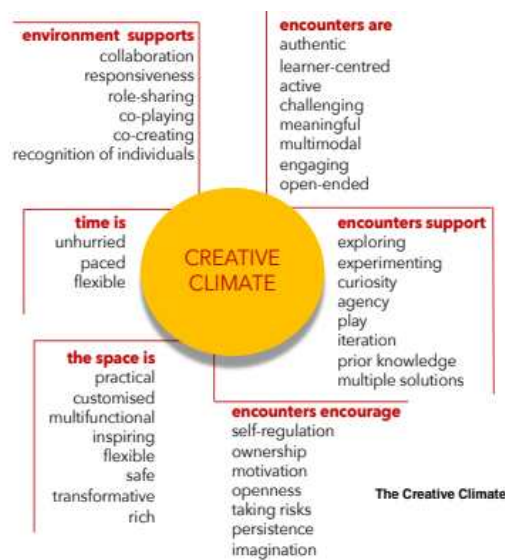
또한 전인교육(whole child education) 관점에서 Pathways는 음악수업의 목표를

‘질 높은 공연’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학생의 주체성(agency), 소속감(belonging), 타자와 함께하는 방식(being with others)을 발달시키는 학습 경험으로 재구성하게 한다. 특히 참여형 음악 활동은 역할의 다양성과 관계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므로, 학생이 음악을 통해 사회적·윤리적 역량을 함께 경험하도록 설계하기에 적합한 기반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예술가-학교-지역사회 간 협력이 중요하다. 음악 역량 제고를 위한 틀에서도 지역사회 연계는 핵심 조건이다. 학교가 모든 자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력은 수업의 진정성, 자원 접근, 다양한 경로의 가시화, 그리고 참여의 폭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이다. 다만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으로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계 맺기, 허락, 신뢰, 상호성 등 윤리적 조건을 포함한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방법]

Jeanneret(2023)은 미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의 창의성과 포용성에 관한 연구에서 창의적 환경(Creative Climate)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녀는 본 인터뷰에서 일반 교실에서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심리적 요인들이 예술 교육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학습자가 위험을 감수하도록 지원하고 자율성을 부여한다.
-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동적인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한다.
- 흥미롭고 관련성 있으며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을 구현한다.
- 문화, 다양성, 포용성을 증진하고, 공간을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으로 바라보도록 장려한다.
- 가능성 사고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참여를 유도한다.
- 교사들이 교실에서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력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림 21 Creative climate Jeanneret (2023)

일반적인 창의성 연구와 아동과 함께 작업하는 예술가 연구(Brown & Jeanneret, 2017; Jeanneret & Brown, 2013)에서 도출된 참여 실천 모델(2013)을 바탕으로, 참여, 창의성, 그리고 형평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리적, 물리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창의적 환경”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예술 교육 분야의 연구를 인정하면서 더 넓은 교육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 모든 교실 수업이 이러한 모든

요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이러한 현상이 창의적 성향 발달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2021년 8월 멜버른대학교 교육대학원 예술교육팀 및 캐나다, 케냐, 싱가포르, 독일, 홍콩의 UNITWIN 회원 연구진과 함께 “예술 교육의 필수 과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방향 “이라는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였다. 새롭게 떠오르는 핵심 과제인 포용성, 식민주의의 영향과 서구 문화와 토착 문화의 균형, 문화적 정체성과 회복력, 팬데믹이 불평등과 예술 교육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필수 과제와 관련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살펴 탐구하였다.

Jeanneret은 탈식민화에 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였다. 권력과 문화적 차이와 같은 어려움은 문화적 평등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예술 교육 같은 경우, 유럽 중심의 서양음악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토착민, 지역 또는 이민자의 문화 자본이 다소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예술 문화의 균형과 토착화를 다루고 지리적 또는 사회적 맥락을 보다 포용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원주민 예술 문화를 접근해야 한다. 연구자들이 채택하는 방법론과 관행은 예술 교육의 탈식민화라는 지속적인 작업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식민주의의 잔재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이 외에도 많지만 교사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차원에서 식민주의가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더욱 은밀하게 드러나는 방식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음악학 연구에서 탈식민주의는 서양 예술 음악을 음악학 연구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서양 정전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서양 정전을 탈중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토착적이고 유럽중심적이지 않은 방법론 및 지식 체계를 경청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실과 연구 활동에 탈식민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Wilson et al., 2023).

(2) Peter Mousaferiadis (Cultural Infusion)

Cultural Infusion은 교육, 예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문화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조화를 구축하는 기관으로, 매년 375,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9년에 출시된 통합 데이터 및 형평성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도구인 Atlas는 전 세계 다국적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Peter Mousaferiadis는 지휘자, 작곡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및 프로듀서로서 문화 및 창의 혁신 산업에서 광범위한 경력을 쌓았으며,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고 더욱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교육과 기술 사용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문화 간 이해를 구축한 공로로 국제적인 상과 인정을 받았다.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지적 우수성 센터(Center for Intellectual Excellence)의 2025년 세계 다양성 리더십상, 2013년 UN 문명 연대 문화

간 혁신상, 종교 자유 및 기업 재단(Religious Freedom and Business Foundation)의 2021년 글로벌 비즈니스 및 종교 간 평화상 은메달 등이 있다. 또한 그는 유엔의 “다양성을 위한 한 가지 행동” 캠페인을 위해 “다양화된 우리 성장”이라는 문구를 만들었다.

Cultural Infusion은 호주 전역의 학교, 유아 교육 센터 및 지역사회 단체에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람들 간의 의미 있는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약 140개의 문화다양성 증진 프로그램이 지리적 지역별, 주제별, 대상별로 개발되었다. 주제는 춤, 언어, 과학, 지속가능성, 시각예술, 연극 등 다양하며, 각 프로그램에는 숙련된 전문 강사가 배치된다. 2025년 12월에는 서아프리카의 리듬과 악기를 가르치는 팀이 빅토리아 언어 교사 컨퍼런스에서 언어가 어떻게 신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를 시연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움직임, 소리,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는 대화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전승을 통한 언어 학습을 체화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교육방법]

문화다양성 ‘담론’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운영 도구로 작동하도록 하는 핵심 원리는 전통·고유 문화를 이국적 체험으로 소비하게 만들지 않고, 비판적 성찰과 공감으로 이어지도록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데 있다. Cultural Infusion이 강조하는 ‘이해’는 “어떤 나라에는 이런 전통이 있다”를 아는 수준을 넘어, 그 전통이 형성되고 유지된 환경과 역사, 그리고 그 문화권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함께 탐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음악은 그 전통이 시작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필수적 요소이다. 본 기관의 프로그램은 문화적 이해, 음악적 호기심, 그리고 고전 전통이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온 방식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기존 교육과 사회 담론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소수 문화, 언어, 공동체를 배워야 하며 권력에 대한 고찰을 할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음악 분야에서는 피타고라스의 평균율이 기본 음계로 설정해지면서 많은 음계들이 소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라별로 존재하는 고유의 음계를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음악으로 다양한 문화권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문화적 보편성이 내재해 있어 접근하기 쉽다. 악기, 음계, 리듬은 먼 곳을 여행하더라도 다른 음악 전통에서도 거의 동일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 고전 음악과 아랍 음악 모두에서 들을 수 있는 이중 화성 음계나 여러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자장가의 6/8 박자 리듬이 그렇다.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음악이 나온 사회·환경·역사적 배경과 함께 왜 이런 소리가 형성되었는지를 배우고, 학생이 자신의 기준으로 타문화를 평가하기보다 해석의 관점을 바꿔보는 활동으로 자기 관점 점검한다. 또 특정 문화를 고정된

전통이나 국가 단위로 본질화하지 않도록 문화의 복합성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정책 제안]

한국과 같이 비교적 문화적으로 단일한 교육 환경에서 다양성을 확대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방향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이주민이나 소수자를 위한 교육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문화적 위치성과 관점을 성찰하도록 하는 보편적 교육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은 문화다양성 교육이 일회성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에 머물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이민자를 대할 때 고정관념과 편견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문화가 형성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문화적 차이를 국적이나 외형 중심으로 설명하기보다, 언어, 신념 체계, 역사적 경험, 사회적 위치와 같은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정교한 문화 이해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3) Millie Locke (The University of Auckland)

Millie Locke는 오클랜드대학교(University of Auckland) 소속 연구자이자 교사교육 교수다. 그녀는 음악교육을 단순히 예술적 기능 향상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기르는 관계적 실천으로 확장해 왔다. 본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ESD 실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한국 교육 맥락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를 논의하였다.

Locke는 프레이리(Paulo Freire)의 ‘자유의 실천으로서의 교육’ 개념을 이론적 토대로 삼는다. 음악교육이 연주 기능 숙달을 넘어 학생의 주체성(agency)을 길러내는 과정이라는 게 그녀의 관점이다.

음악수업은 비판적 의식과 실천이 결합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습할 악곡을 확장하고 작곡 활동, 협업을 통해 권력, 형평성, 정체성 문제를 탐구하고, 이러한 성찰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실천적 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방적 지식 전달 중심의 ‘은행저금식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음악 창작 과정과 학습 기준, 교실 규범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창조 교육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Millie Locke, 2026. 01. 13, The University of Auckland)

음악교과는 인지적 이해를 넘어 감정과 신체를 동시에 참여시키는 예술이다. 그래서 ESD 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요소가 많다. 첫째, 생태주의 측면을 보면 음악은 소리와 침묵, 개인과 집단,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관계 중심 행위다. 학생들은 자연의 소리를 탐색하거나 지역 생태계에서 영감을 받은 사운드스케이프를 창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게 된다. 둘째,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음악 합주나 합창은 문화를 설명하고 비교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함께 듣고 조율하고 반응하는 경험을 만든다. 상호존중이 추상 개념이 아니라 실천되는 과정이다. 셋째, 성평등 측면에서 음악 교실은 악기, 장르, 역할에 내재된

젠더화된 위계와 고정관념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상상블에서는 리더십과 권한이 특정 성별이나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 종합하면, 음악교과는 생태주의, 문화다양성, 성평등 교육에서 감각적·신체적·관계적 차원을 통합해 경험하게 만드는 독특한 교육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

Locke는 음악수업의 ESD 관점 적용의 성패는 자료를 개발하고 학습 경험을 설계, 실행, 성찰하는 순환 구조(action-reflection cycle)에 있음을 말하였다. 특히 효과적인 실천 원리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자연, 인공 구조물, 유물과 같이 지역적으로 의미 있고 실제적인 연결을 한다. 둘째, 시, 춤, 동작, 지역, 문화, 전통 등 다른 예술 형태와 통합한다. 셋째, 오르프의 교수법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언어적 접근을 적극 활용한다. 넷째, 원주민 고유의 세계관, 서사를 불러온다. 뉴질랜드는 Papatūānuku-Ranginui, Rata와 Tōtara 이야기가 있다. 다섯째, 참여적이고 공동체 기반의 협력학습을 한다. 즉, ESD는 주제 전달이 아니라 학생의 목소리를 문화 속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학습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문화 다양성 교육: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

Millie Locke는 문화를 소개하거나 체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함께 형성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교육은 특정 문화 요소를 알려주는 방식을 넘어, 학생 각자의 문화적 경험과 목소리가 수업 안에서 표현되고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모든 문화를 설명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배우는 공동 학습자로서 문화적 겸손을 실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업에서 누가 말할 기회를 얻는가, 어떤 음악이 선택되고 어떤 목소리가 중심에 놓이는가를 비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여기서 선택은 단지 레퍼토리 목록의 문제가 아니라 수업에서 어떤 정체성이 드러나고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좌우하는 교육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신이 서 있는 장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소리의 가까움과 멀어짐, 지속과 단절, 반복과 변화를 감상하게 된다. 이는 청각적 주의를 기울이고 소리를 변별하며 기억하는 음악적 듣기의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경험 위에서 질문이 가능해진다. 이 소리는 누구의 삶과 연결되는가, 누가 잘 들리지 않는가. 이런 질문은 문화다양성과 장소성을 연결할 때 문화, 권력, 배제, 정체성으로 성찰을 확장하는 통로가 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음악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위치를 재인식하고 공동체 안에서 더 공정한 듣기의 조건을 탐색하게 된다.

[생태 문해력: 총체적 역량]

문화다양성을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 확장할 때 생태 문해력이 중요해진다. Locke가 말한 생태 문해력은 환경 지식 습득을 넘어 인간, 자연, 사회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관계의 얽힘에 책임 있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여기에는 정서적·미적 감수성, 윤리적 판단, 지속가능한 실천, 비판적 사고력이 포함된다. 따라서

생태 문해력은 음악 수업에서 주제로만 다루기보다, 학생이 듣고 표현하고 창작하고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태도를 조정해 가는 방식으로 길러질 수 있다. 생태 기반 창작은 실행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Locke는 사례를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맥락에 맞게 번역할 것을 강조한다. 한국 상황에서 중요한 지점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도시를 자연이 부족한 제약으로 보기보다 다시 듣고 해석할 수 있는 학습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학생 일상 속 날씨 변화, 바람 소리, 학교 화단, 계절 냄새를 관찰하고 음악적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 또한 건물, 지하철, 학교 시설 같은 인공 구조물도 자연과 연결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 지하철 소음, 운동장 방송, 교실의 울림은 모두 학생의 일상과 감정, 관계 경험을 구성하는 환경이다. 도시가 이미 학생들에게 가장 가까운 장소 기반 교육 현장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감각 경험, 창작, 성찰을 연결하는 교수 설계에서는 기법의 완성도보다 어떤 관계와 태도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즉흥, 체화, 협력 활동을 정답 있는 활동으로 통제하기보다, 학생이 발견한 소리와 해석의 다양성이 학습의 자원으로 작동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동시에 타문화와 자연 이미지를 맥락 없이 소재로만 소비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특정 문화 음악 요소를 사용할 때는 왜 지금 여기서 이 재료를 쓰는가, 존중과 학습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한다. 활동 후에는 대화와 성찰 시간을 확보하여 내가 고른 소리는 왜 중요했나, 다른 사람의 소리에서 무엇이 새로 들렸나, 우리가 함께 만든 소리 구조는 어떤 관계를 드러냈나를 질문함으로써 창작이 단발성 산출물로 끝나지 않도록 연결한다.

셋째, 생태 위기나 사회적 불평등 같은 이슈를 음악으로 다룰 때는 메시지를 주입하기보다 학생이 자신의 감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 안에서 음악으로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학교 공간의 소리 환경을 관찰한 뒤 누구에게 어떤 소리가 부담이 되는가를 논의하고, 소리를 줄이거나 바꾸기 위한 작은 규약을 만들거나, 특정 공간의 분위기를 음악적으로 재구성해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음악적 활동이 삶의 선택과 연결되도록 한다. 이슈는 내용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삶을 더 섬세하게 듣고 책임 있게 반응하는 실천의 조건으로 다뤄져야 한다.

위 논의는 포괄적 음악성 관점과 연결된다. 음악 학습이 기능 중심으로 분절되는 것을 넘어 듣기, 표현, 창작, 이해, 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으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음악교육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즉 문화다양성, 장소성, 생태 문해력은 음악 수업의 주제 추가가 아니라, 학생이 관계 속에서 듣고 만들고 성찰하며 공동체적 책임을 학습하는 음악성 형성의 방식으로 기능한다.

(4) Emily Wilson (The University of Melbourne)

연구팀은 2026년 1월 27일, Google Meet 플랫폼에서 Emily Wilson과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Wilson은 음악을 음악 자체로만 보는 절대음악 관점은 토착 문화권이 포함된 많은 문화권의 음악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고 하였다. 음악은 늘 문화

와 가치, 관계, 윤리적 맥락과 함께 공존해 왔기에 학생들은 그런 음악의 기원과 맥락을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녀는 그동안 음악교육에 있어 실효성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문화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음악교육 관점에서의 이론적 기반과 방법론적 담론을 연구해 왔다. 특히 학생 참여를 ‘학습 경험’으로 입체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인터뷰에서는 Wilson의 3가지 주요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방법의 핵심과 설계 원리를 확인하였다.

[교육방법]

1) Arts Education Imperatives: Connecting the Globe

Wilson의 「Arts Education Imperatives: Connecting the Globe」는 오늘날의 지속가능성·세계시민성의 의제로 주체성(Agency), 웰빙(Wellbeing), 탈식민지화(Decolonisation), 문화적 회복탄력성(Cultural resilience) 4가지 축을 제시한다. 이미 일상이 된 디지털 이후(post-digital) 이 과제들은 ‘세계와 연결되는 예술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상호 연결된다고 본다. 인터뷰에서 Wilson은 특히 decolonisation은 비교적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 왔지만 cultural resilience는 교실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더 분명히 연구하고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녀는 지속가능성이 생태 이슈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정치적 지속가능성까지 포괄되어야 하며, 결국 음악수업은 ‘내용 전달’보다 관계와 책임 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설계로 작동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2) Educative Evidence-Based Practice in Music Education

음악교육에서의 교육적 근거 기반 실천 연구에서는 음악교육 분야는 연구 근거를 단순히 적용하는 차원을 넘어 교사가 자기 수업 맥락에서 해석하고 조정하고 성찰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증거 기반 실천을 지향한다고 명시한다. 이 접근은 연구 근거가 하나의 처방전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교실 현장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실천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한다.

3) Caring for our planet

「Caring for our planet: a world apart or same difference?」는 스코틀랜드 애버던와 호주 멜버른 음악교육 예비교사들이 온라인 국제 협력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로 기후위기라는 공통 의제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에 맞는 음악 협업하여 창작하여 제고된 기후 인식을 파악하였다. 학생들은 짧은 수업시간에도 접근 가능한 디지털 도구로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었고, 음악과 영상이 결합되니 기후 메시지가 더 강하게 전달되었다. 현실 환경과제 깊은 사명감을 부여했고 공동작곡 과정이 기후 불안을 희망과 행동의 정서로 전환시키는 통로가 되었다. 이외에도 학생이 DAW(예: Soundtrap for Education)를 ‘가르치는 기술’로 전환해보는 자신감이 생겼고 특히 예비교사가 아닌 디지털뮤직 전공자들은 커뮤니티 워크숍까지 확장 가능성을 봤다고 한다. Wilson은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지역 환경을 촬영하고 음악을 만들며 자연

스럽게 환경을 관찰하고 돌보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교사교육]

Wilson은 음악 수업에서 학생 참여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Teaching for Engagement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녀는 학생 참여를 학생 개인 특성으로만 두기보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문화, 활동 설계, 자율성, 평가, 제도 맥락 등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조건을 조성하는지 설명하는 ‘교수 실천 모델’로 제안하였다(Wilson, 2019). 이를 위한 실천 원리로 활동적 음악 만들기(active music making)를 제시한다. 수업의 시작점을 기호·개념 설명에 두기보다 소리(sound) 경험을 먼저 제공하고, 이후에 개념을 정리하는 순서가 학생의 몰입과 학습 심화를 촉진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교사교육은 내용 전달 역량보다, 실음 중심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의 반응을 학습으로 조직하는 경험-기반 교수 설계 역량을 중심에 둘 필요가 있다.

Wilson은 디지털 기술과 학교 밖 음악 실천을 교실에 연결하는 전략이 학생 참여를 높이는 데 유효하다고 봤다. 하지만 참여 전략이 곧바로 교육 방향을 보장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생이 원하는 것만 따르는 방식은 기존 사회적 불평등과 규범을 무의식적으로 재생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문화다양성이나 성평등 같은 가치를 수업 설계에 의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교사교육도 단순히 도구 사용법이나 흥미 유발 기술을 가르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레퍼토리 선택, 역할 배치, 협업 규범, 피드백 방식 등 수업의 세부 장치가 어떤 가치를 강화하고 어떤 가치를 약화하는지 점검하는 설계 역량을 훈련해야 한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습자와 함께할 때, 실수할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는 오히려 문화의 침묵을 강화할 수 있다. 교사는 자신의 위치성(positionality)을 성찰하고 지식 멘토(knowledge holders)와 협력해야 한다. 완벽을 기다리기보다는 겸손하게 시작하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하는 책임 윤리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교사교육의 목적은 실수하지 않는 교사를 만드는 게 아니다. 학습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문화적으로 안전한 교실을 구축하고, 참여와 가치를 함께 붙드는 실행 역량을 기르는 데 있다(Emily Wilson, 인터뷰, 2026.01.27.).

3) 성평등 교육

(1) Helen Cahill (The University of Melbourne)

Helen Cahill은 학교 기반 성평등·존중 관계 교육과 폭력 예방 교육을 연구하고 개발해 온 교육학자로, 교사 전문성, 학생 웰빙, 관계 중심의 전교적(whole-school) 접근을 주요 축으로 논의한다. 본 인터뷰는 다양한 국가 맥락에서 관찰한 실행 장벽, 교사를 위한 지원, 연령별 설계 원리, 예술 기반의 교수법 설계와 한국 맥락에서 전교적 접근을 시작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단계를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RRE]

Cahill은 존중 관계 교육(Respectful Relationships Education, RRE)을 ‘추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 문화·수업·지원체계 전반에 스며드는 전교적 접근의 설계 문제로 보고 있다. 학교 전체차원에서 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전교적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UNGEI, 2018; Our Watch, n.d.). 관계 중심 RIC 접근법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조성하며 학습과 복지를 향상시킨다. 더 나아가 학생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협력 학습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65개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협력 학습은 연령, 학력, 학습 영역 및 문화 전반에 걸쳐 전통적인 교육 방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학습 전략을 활용하면 괴롭힘이나 폭력의 상황에서 동료 지원과 교사에게 도움 요청률이 높아진다. 효과적인 웰빙 교육은 협력 학습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Cahill & Dadvand, 2021; Dadvand & Cahill, 2021).



그림22 Wholeschool approach 구성요소



그림 23 사회생태학적 개입 수준 (수정)

[호주 실행 맥락]

이러한 전교적 접근은 개인 차원을 넘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 구조 전반에서 형성된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호주의 실행 맥락에서는 ‘인권’과 ‘동의’의 언어가 교육의 출발점으로 강조된다. 호주의 성평등 교육은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데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 배우면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더 잘 옹호할 수 있게 된다. 인식 변화의 첫 단계는 불평등의 존재를 인식하고 불평등의 억압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에 있다.

Cahill은 디지털 환경에서 관계 규범이 빠르게 재구성되는 만큼 성평등 교육이 정보 전달을 넘어 경험 기반의 연습과 도움 요청의 경로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컨대 SNS·메신저·영상 플랫폼에서의 소통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맥락이 생략된 채 재해석되며 또래 집단의 반응이 증폭되기 쉬운 구조다. 또 이미지를 조작하여 비동의된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움직임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렇게 이미지 기반의 성폭력(image-based sexual abuse)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호주에서는 ‘적극적 동의(affirmative consent)’¹⁾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교육방법]

존중교육 설계 원리

이러한 관점에서 Cahill은 ‘play first’ 접근을 통해 관계 기술을 개념이 아니라 몸의 경험과 상호작용 속에서 연습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장 인터뷰에서 활동을 먼저 진행하여 감각을 느끼고 이후에 언어화하여 의미를 정리하였다. 권력, 경계, 조율을 경험할 수 있는 The Mirror 활동과 권력 남용과 관계 역학을 체감할 수 있는 The Robot, Controller 활동, 젓가락을 활용한 게임을 직접 실습하여 체화인지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전 세계의 최신 연구 및 실제 사례를 종합한 유네스코의 교육 시스템에 사회적 및 정서적 학습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및 증거 지침에 따르면, 사회정서학습(SEL)은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중퇴율이 감소하며 학습자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교실, 학교, 지역사회 및 사회 전반의 정서적, 관계적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유네스코는 ‘존중으로 연결하기(Connect with Respect, CWR)’라는 이름으로 성 기반 폭력 예방을 위한 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77%의 학생들은 협력 학습 기반의 CWR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형성 능력이 향상했다고 응답하였다 (Cahill et al., 2018; Cahill et al., 2023).

Cahill은 존중교육을 단발성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발달 단계에 따라 누적되는 학습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성 역할 모델, 사회적·제도적 지원, 성인과의 긍정적 관계, 지역사회 자원 접근성이 필요하다. 또 부

1) 적극적 동의(affirmative consent)는 성적 행위에서 동의가 상대의 말이나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확인되어야 하며, 동의가 있다고 믿기 위해서는 동의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steps)가 요구된다는 모델을 말한다. 호주에서는 주(州)별로 동의 법제가 개정되었는데, 예컨대 뉴사우스웨일즈(NSW)는 성적 동의 법 개정이 2022년 6월 1일 시행되었고, 빅토리아(VIC)는 「Justice Legislation Amendment (Sexual Offences and Other Matters) Act 2022」의 주요 동의 개정 조항이 2023년 7월 30일까지(또는 그 이전) 시행되도록 규정되었다. 퀸즐랜드(QLD)도 「Criminal Law (Coercive Control and Affirmative Consent)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Act 2024」에 따른 동의 관련 개정이 2024년 9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정적인 미디어 메시지와 사회적 규범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핵심 주제는 유지하되 활동 방식은 연령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위험 장면을 재현하기보다는 보호 행동, 도움 요청, 관계 기술을 구조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반복 연습시키는 원리를 강조했다. 민감 주제에서 강요된 자기노출은 피해야 한다는 등 존중교육 설계 시 주의해야 할 최소 원리도 언급했다.

예술교육, 역할극

예술 기반 활동은 민감 주제에서 학습자의 장벽을 낮춘다.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을 안전하게 리허설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 Cahill은 드라마나 역할 기반 활동을 통해 학생이 안전 행동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행동으로 리허설’ 하게 만드는 방식을 제시한다. 역할극 활용 시 여러 기법이 가능하다. 자신의 연기 장면을 모니터링하는 스냅샷, 역할 바꾸기, 각자 맡은 캐릭터 상황에 대한 인터뷰, 역할극 관람 후 배우들에게 캐릭터에 조언하기 같은 방법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 폭력적인 장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건 피해야 한다. 도움 요청 역할극은 시나리오에 포함된 성 기반 폭력을 재현하는 게 아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연습해서 행동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활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Cahill은 음악교육 내에서 활용 가능한 접근 방식을 소개했다. 음악은 서로 다른 부분들이 결합해 전체를 이룬다. 그래서 포용과 조화를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 시대, 전통의 음악을 활용하는 것은 포용, 존중, 차이의 개념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다.

“음악교육은 공존, 책임, 연대와 같은 ESD의 핵심 가치를 경험적으로 학습하는 게 큰 강점입니다. 특히 합주합창은 학생에게 “모두가 같을 필요는 없다”는 원리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파트를 맡고 서로를 듣고 조율하며 ‘개인보다 큰 목적’을 위해 협력하며 전체를 완성하는 경험을 합니다. 예컨대 학급 담임교사가 이끈 합창 활동이 아이들의 경험을 크게 변화시키고 안전감·소속감에 기여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Helen Cahill, 2026. 01.08, The University of Melbourne)

[정책 제안]

교육방법이 제시되더라도 현장에서 지속되려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이 함께 강조된다. 시스템 수준에서 접근해야 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수업 계획 및 동료와의 협력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 • 교사 전문성 개발 연수 |
| • 명시적 교수법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 • 학교 및 대학의 지원 정책 |
| • 성 평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법과 사회의 접근 방식 |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 • 전교적인 접근 방식 |
| • 교과 과정 통합적 접근 방식과 명시적 교수법 | • 예방 교육 교육과정 의무화 |
-

전교적 접근이 작동하려면 교실 수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교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 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흔히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 ①성폭력·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 ②안전하고 편안한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다. ③폭력을 강화할 수 있는 훈육과 수업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④성평등과 건강한 또래 관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요인들이 누적되면 위험이 증폭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리더십의 헌신을 바탕으로 학교 문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성평등 및 젠더 기반 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과 피해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D. 탐사 결과

1. 탐사의 의의

본 탐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하 ESD)와 음악교육의 연계 가능성과 강점을 확인하고 현실적·제도적 실천 방안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탐사팀은 현지 방문 전 사전 조사와 국내 탐사를 통해 이론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 현장의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ESD의 모범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여러 기관과 학교를 방문 대상으로 설정하여 탐사 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구체적인 탐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육의 교육적 의미 확장이다. 탐사팀은 현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음악교육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학습자의 윤리적 성찰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며 ESD와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모두 ‘교육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공감하였고, 교육과정 설계와 제재곡 선정, 활동 내용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며 특히 감수성을 바탕으로 지식을 체화하는 성격이 강한 음악교육의 강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교과교육을 넘어선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토대가 된다.

둘째, 국내 교육 현장 적용 및 실천 방안 제시이다. 탐사팀은 현지 탐사를 통해 ESD 음악교육과 관련해 이루어지는 최신 연구들과 교육 현장에서의 수업 활동의 예시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국내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물으로써 ESD에 속한 여러 주제 가운데 특별히 생태주의, 문화다양성, 성평등과 관련해 실제 음악 수업에 적용 가능한 총 9차시 수업지도안을 개발하였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ESD가 실천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자 구체적 수업 모형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셋째, 정책·제도적 연계 가능성 확인이다. 탐사팀은 현지 사례에서 지방정부·커뮤니티·학교가 연계된 자원순환 및 교육 공급 구조(뉴질랜드 Inorganic Collection 재사용 정책, EnviroSchools 지역 파트너십)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

례를 한국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ESD를 실천함에 있어 학교와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 제도적 뒷받침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음악교육 학회 발표 및 국제 음악교육 연구 네트워크 구축이다. 탐사팀은 현지 탐사 내용을 질적 연구 과정을 거쳐 정리한 뒤 ‘인류세’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탐사를 일회적 경험을 넘어 지속적 연구로 이어지게 하는 발판이 된다. 또한 탐사를 통해 구축한 현지 기관 및 전문가와의 국제적 네트워크는 향후 연구를 진행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2. 정책적 제언

1) 지속가능발전교육 음악교육 전용 예산 라인 신설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음악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ESD 음악교육 전용 예산 라인의 신설이 필수적이다. 현지 탐사를 통해 만난 전문가들은 ESD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반드시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ESD 음악교육은 교사의 자발적 실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질 높은 교육을 지속성 있게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에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목적이 명확한 전용 예산을 편성하여 중장기적 계획하에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탐사는 ESD 음악교육 전용 예산을 ‘기본 지원금’과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이원화 하여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기본 지원금은 요건을 충족한 학교에 연간 정액으로 배정하여 수업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고 실천을 독려하는 데 목적을 둔다. 프로젝트 지원금은 공모 방식으로 운영하되, 교육과정 연계성, 지역사회 협력 여부, 지속가능성 및 확산 가능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아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울러 전용 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및 회계 절차가 간소화 되어야 한다. 소액·현물 중심의 교육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집행 항목을 유연하게 인정함으로써 교사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공공기관·민간 기업과의 매칭 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공교육 예산을 기반으로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재정 구조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전용 예산 라인의 도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음악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공교육의 책임으로 명확히 인식하는 정책적 선선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학교 간 재정 격차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교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ESD 음악교육을 설계·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하는 핵심 제도로 기능할 것이다.

2) 교사 역량강화·커리큘럼 개발 및 지역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음악교육 현장에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커리큘럼·인프라 등 교육 자원의 지원이 중요하다. 먼저 이를 위한 교사 역량 강화는 ‘정기적 연수 프로그램의 제도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연수 내용은 ESD의 핵심 개념, 윤리적 문제의식, 프로젝트형 수업 설계 및 평가 방안을 포함하여 실천적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연간 연수 일정을 고정화하고 연수 이수율 증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연수 이수에 대해 공식 인정과 함께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학년별 ESD 음악 수업지도안을 만들고 보급하는 커리큘럼 개발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ESD의 실천과 관련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수업 모형 및 자료의 부족함이었다. 따라서 교사들의 수업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 지도 방안을 학교급별 수준에 맞게 제시하고 관련 자료와 평가 도구 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장 피드백을 반영하여 완성도와 적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

지역 파트너십 네트워크는 NGO, 지역 예술단체, 대학, 재활용 허브 등과의 협력을 통해 물자·전문성·현장학습 기회를 연결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EnviroSchools와 Konini School의 협력이 이러한 정책의 사례이다. 학교와 지역 주체를 연결하고 지속적 협력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학교는 교실 안에 국한되지 않은 실제적 학습 자원과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학생들에게 지역의 환경·문화·산업 맥락을 반영한 높은 수준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며 학습의 질과 현실 적합성을 동시에 제고한다. 나아가 학교 교육 활동이 지역 사회의 자원 순환, 문화 활성화,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며, 학교와 지역이 상호 의존적·상생적 관계를 형성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3) 재사용 물자 무상 공급 시스템 - 뉴질랜드 ‘Inorganic Collection’ 사례

뉴질랜드 오클랜드 의회의 ‘Inorganic Collection’ 정책은 대형 폐기물 수거를 단순히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을 지역사회에 다시 연결하는 공공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모델은 지방정부가 수거·선별·분배의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자원의 순환과 사회적 활용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교사는 의회가 확보한 자원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러한 구조는 교육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며,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의 ‘폐기물 수거 및 재사용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 주민이 사전 예약을 통해 배출한 가구·가전·기물 중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선별하여 학교와 교육기관을 우선 수요처로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학교와 교사는 안전 검수를 거친 물품을 교육 목적으로 무상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재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자원순환의 교육적 가치를 수업에 직접 반영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책임, 행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제품의 위험 요소 제거, 위생 및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수 지침을 마련하고, 수거 시점 이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재사용 물품을 교육용 현물로 인정할 수 있는 회계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시범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허브 운영과 학교 연계를 시범 운영 해보고, 지역 NGO 및 예술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물품 수선과 교육적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지속 가능발전교육을 공공이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이다.

III. 결론

A. 핵심 내용 요약

본 연구팀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해외 모범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음악교육 적용 방안 연구: 생태주의, 문화다양성, 성평등 교육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 고찰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며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동향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등을 통해 이를 적극 반영하고자 하나 실제 국내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은 미비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국내 탐사는 학술 세미나 참석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미래음악교육학회 학술 세미나의 주제였던 ‘체화인지’는 ‘생명체가 세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생성하는 삶’의 과정으로서, 세계, 공동체, 환경과 나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려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 김광현 박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지금까지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연구·활용된 내용을 파악하면서, 동등한 상호 교류와 학습자의 문화적 자긍심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다문화’에서 ‘문화다양성’으로 용어가 전환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팀의 탐사 주제 또한 ‘문화다양성’으로 개념을 수정하고 정리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음악교육 전공 신지혜 교수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실제 수업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프레임워크 개발과 함께 교사 교육, 예산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무비관적으로 반영하는 오류를 경계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연구팀은 이 같은 국내 탐사를 통해 한국 교육의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립하고, 해외 탐사 및 연구 결과 적용 시 고려 해야 할 점을 파악하여 보다 면밀하게 현지 탐사를 준비하였다.

해외 탐사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현장 탐방과 전문가 개별 심층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현장 탐방은 지속가능발전교육 우수 실천 학교와 지역 공원, 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뿐 아니라 정부와 지역 사회 수준에서부터 지속가능성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과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팀은 인터뷰를 통해 세부 연구 주제인 생태주의, 문화다양성, 성평등 교육이 어떻게 음악교육과 접목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적 모델과 실천적 사례들을 습득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음악교육 연계의 필요성,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있어 음악교육이 지니는 강점, 지속가

능발전교육에 관한 음악교육의 역할에 대해 모든 인터뷰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특히 음악교육 전문가들은 ‘음악교육의 탈식민화(decolonisation)’ 관점을 제시하며, ‘교육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므로 늘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해 개별 수업 내용을 넘어 교육과정 차원에서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하며, 단일 과목을 넘어 전교적 접근(whole-school approach)을 통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특별히 제재곡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함께 음악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체화인지 활동 사례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타 교과 및 지역사회, 국제적 연결 등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수업을 제안하였다. 이 같은 연계 학습은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치인 상생과 협력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가 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음악교육 접목을 위한 교사교육과 예산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음악교사의 윤리적 성찰이 있어야 하며, 학교와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실천을 독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였다.

B.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음악교육의 이론적 모델 및 실천적 사례 습득, 한국 교육 맥락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 정책 제안과 수업지도안 개발을 통한 연구 결과물 도출, 향후 연구 지속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교육 분야 여성 리더로서의 성장 기회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팀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석사과정생으로서 현지 탐사를 통해 생생한 교육 현장을 경험하고 선진적인 연구자들과 논의하며 교육 분야에 관한 더욱 넓은 시야와 깊은 관심을 지니게 되었다. 탐사 이후 연구팀은 현지에서 인터뷰한 전문가와의 연락을 지속하며, 탐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국제 학술대회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음악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특별히 생태주의·문화다양성·성평등 교육의 실천 방안을 연구하고자 현지 탐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입시 위주의 경쟁이 과열되는 우리나라의 교육 분위기 속에서 점차 도외시 되는 음악교과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 가치를 되살려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연구팀은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광범위한 내용 가운데 생태주의와 문화다양성, 성평등 교육의 세 부분으로 세부 주제를 설정하였으나, 이는 결국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교육으로 한데 일컬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지 탐사를 통해 이러한 음악교육의 ‘교육적 의미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책 제안과 수업지도안 개발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확립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C. 후속 연구 방향 제시

본 연구팀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국내 음악교육 적용 방안 연구 결과로 음악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물인 수업지도안이 실제 교실 현장에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은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수업 현장의 성격에 따라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교육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팀이 개발한 수업지도안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 뒤 효과성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적용한 효과적인 음악교육 수업지도안이 꾸준히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 제안 결과물과 같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음악교육 연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효과가 즉시 나타나기 어려운 교육 분야 정책의 특성에 따라 물적 지원을 비롯한 교육 정책 연구를 장기적 관점으로 실시하고, 음악교육을 넘어 전 교과에 이르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확산과 유지를 위해 교육과정·교원연수·예산 배분 등 다방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정책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 록

1. 연구 일정 및 방법

단계	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준비	- 연구 주제 선정 - 문헌 조사 및 선행 연구 고찰	●	●				
설계	- 연구 대상 선별 - 국내 기관 및 전문가 탐사		●	●	●		
실행	- 연구 도구 제작 - 호주·뉴질랜드 현지 탐사				●	●	
분석	- 연구 내용 분석 및 분류					●	
정리	- 연구 결과 및 결론 도출 - 결과물 제작 (정책 제안, 수업지도안)					●	●

2. 탐사 일정

국가	도시	기관 및 전문가	소개 및 소속	일시
호 주	멜버른	Neryl Jeanneret	멜버른대학교 음악교육 교수	2026. 01. 07. 14:00
		Helen Cahill	멜버른대학교 성평등 교육 교수	2026. 01. 08. 11:00
		Cultural Infusion	문화다양성 교육 기관	2026. 01. 09. 11:00
뉴질랜드	오클랜드	Konini School	지속가능발전교육 우수 실천 학교	2026. 01. 12. 10:00
		Enviroschools	생태주의 교육 네트워크	2026. 01. 12. 14:00
	로토루아	Millie Locke	오클랜드대학교 음악교육 교수	2026. 01. 13. 11:00
비대면 인터뷰		Emily Wilson	멜버른대학교 음악교육 교수	2026. 01. 27. 17:30

3. 연구 도구

Prof. Neryl Jeanneret
 The University of Melbourne

I.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in Music Education

1. 음악교육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1. Why do you think we should view the music curriculum not only as training to improve artistic skills, but also as practical education that develops students' soci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1. 음악 교과를 '예술적 기능성을 높이는 교육'을 넘어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지닌 학생을 키워내는 실천적인 교육'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What strengths does the music curriculum have for putting ESD into practice? In particular, regarding ecological education, cultural diversity, and gender equality, are there distinctive features or unique values of music education that set it apart from other subjects?

2.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실천에 관해 음악 교과가 지닌 강점은 무엇인가요? 특히 생태주의, 문화다양성,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 다른 교과와 구별되는 음악 교과만의 차별성과 고유한 가치가 있을까요?

3. As you have noted in your research, music education can contribute to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We also wish to design a model that puts ESD into practice within classroom instruction—through curriculum content, teaching methods, and assessment. In your view, what are the key design principles (e.g., content selection, activity design, assessment methods) that are important for integrating ESD into music education?

3. 교수님께서 여러 연구를 통해 예술교육이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 저최도 가치 수준의 선연을 넘어 교과 수업의 내용, 방법, 평가로 실제 구현되는 모델을 설계하고 싶습니다. 음악교육에서 ESD를 수업에 반영하기 위해 교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핵심 설계 원칙(내용 선정, 활동 구성, 평가 방식 등)은 무엇일까요?

4. We were impressed that you identified "decolonization" as an important task for arts education i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discussion. From the perspective that decolonization is a core task of arts education, what does it concretely mean to decolonize music education? (For example: repertoire selection, sources of knowledge, rights/ethics, the learner's role, etc.)

4. 교수님께서 국제 협업과 논의 속에서 예술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탈식민화'를 제시하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탈식민화'가 예술교육의 핵심 과제라는 관점에서, 음악교육을 탈식민화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레퍼토리 선정, 지식의 출처, 권리/윤리, 학습자 역할 등)

→ 인터뷰 질문지 예시


[Interview 6] Envirochools

- 인터뷰이: Susan Hutchinson-Daniel (Senior Sustainable Schools Advisor)
- 인터뷰 일시: 2026년 1월 12일 오후 2시
- 인터뷰 장소: Envirochools Auckland Region Office

질문1	Envirochools 오울랜드 지부의 미션과 현재 중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최근 2~3년 간 '수업'이 바뀌었다면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답변1	우리는 Te Ao Māori의 학습 원칙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운영을 두고 있으며, 오울랜드 지역의 Envirochools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투자(Social Return on Investment)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등학교(secondary school) 수준의 역량 강화와 함께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부분에서의 성과를 기념하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과의 변화로는 통학을 위한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의 장려가 포함되며, 또한 Mana Ora Youth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 제공되는 추가 자원이 마련된 점이 있습니다.
질문2	오울랜드 지부의 주요 성과 지표(예: 참여학교 수, 학생 참여도, 장기 프로젝트 수 등)는 무엇인가요? 성공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효과적이었던 프로젝트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답변2	우리는 Envirochool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교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내 학교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은 106곳, 학교는 245곳입니다. 성공은 여러 방식으로 측정합니다: 학교들이 그들의 성과와 추가 지원-전문성 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보고하는 면에 설문조사, 교사들이 특정 주제(예: 식량 주권 및 지역 공동체 형성, 학교 과수원 및 마이카이(학교 텃밭))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기 위해 모이는 클러스터(cluster)와 wānanga(세미나 워크숍)에 참여한 교사 수, 지역-민영 행사에 참가한 학생 수, 조류와 곤충의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한 표목장을 개발하거나 자생 나무의 관육을 식각하는 등 환경 성과 개선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교 수, 학교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폐기물 감축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 등. 자세한 성공 사례 관련 문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nvirochools.org.nz/regions/auckland/
질문3	Envirochools의 가치(예: 학습자 중심 교육, 다양성 존중, 지속가능한 공동체 등)가 오울랜드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나요? 이 원리들이 음악-예술 교육에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3	아오테이로아(Aotearoa)의 원주민인 마오리(Māori)는 사람과 모든 생명을 창조와 연결하는 세대를 넘는 깊은 전통, 관습 및 일상적 실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Te Ao Māori 즉 마오리의 세계관은 매우 강한 영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아오테이로아에 머무는 동안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 사건(추진)이 의미 있는 장소들과의 문화적 연결을 유지하는 음악과 노래의 전통이 매우 강하게 존중됩니다.
질문4	Envirochools의 kaupapa(목표)를 가장 중요한 '학습'이 아니라, 관계와 책임을 중심으로 한 '실천'으로 이해하는 철학으로 보입니다. Envirochools는 학생들이 지속가능성 교육을 통해 어떤 주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요?
답변4	우리는 파파투아누우(Papaānuku) 대지의 어머니를 존중하고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자신이 속한 고유한 장소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학습자를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삶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한 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신감 있고 창의적인 학습자입니다.

인터뷰 정리 예시 ←

2. 수업계획

주제	사물놀이(운우풍뢰)	차시	3차시 중 1차시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놀이를 듣고 음악에 표현된 자연(운우풍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사물놀이에 사용된 소리와 리듬의 역할을 바탕으로 음악이 자연을 표현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와 리듬을 통한 자연 표현 			
주요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놀이를 감상하고 음악에 나타난 자연(운우풍뢰)의 의미와 소리, 리듬의 특징을 살펴본다. • 사물놀이 감상을 바탕으로 음악이 자연을 표현하는 방식을 자신의 말로 정리하여 표현한다. 			
교과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성 역량			
평가 방법	개인 발표, 과정 평가			
학습 자료	스마트 칠판, 활동지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유 의점
도입	<p>1. 인사 및 주변 정리하기</p> <p>2. 흥미 유발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바람, 천둥, 구름 소리를 들려주며 무슨 소리인지 귀기울여 맞출 수 있게 한다. - “이 소리를 음악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까? 만약에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질문하고 답하기 - 학생들이 답변한 바와 같이(예: 천둥소리는 책상을 크게 두드리며 표현할 수 있어요, 비는 발걸음을 빠르게 내는 소리와 비슷해요 등) 자연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 “먼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자연의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했어요. 오늘은 그 음악에 대해 함께 감상해봅시다.” <p>3. 학습 목표 제시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모두 다 함께 읽는다. 		5분	
전개	<p><활동 1> 사물놀이 감상하기</p>  <p>유튜브 '국립국악원'</p> <p>https://www.youtube.com/watch?v=gcqmb54nWLM</p>		35분	교사는 학생들이 능동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악원의 사물놀이 감상하기 - 활동지에 곡 분석(빠르기, 세기, 분위기 변화 등) 과 자신의 감상평을 적기 - 교사는 학생들이 음악을 들으며 자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는지 질문하며 답변을 유도한다. “이 음악을 들으면서 혹시 비가 오는 소리나 천둥이 치는 소리가 들린 친구가 있나요?” - 이후 사물놀이가 자연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음악일 뿐 아니라 네 가지 자연 움직임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려준다. ” 여러분이 방금 활동지에 쓴 것처럼 사물놀이는 자연의 느낌을 표현한 것 뿐 아니라, 네 가지 자연 움직임을 정해서 음악으로 만든 곡입니다. 이것을 운우풍뢰라고 불러요.” <p><활동 2> 사물놀이에 등장하는 악기들이 자연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나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놀이의 각 악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들려준다. - 학생들은 활동지에 사물놀이의 악기들이 자연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적는다. - 교사는 사물놀이의 운우풍뢰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구름): 팽과리. 맑고 날카로운 소리. 음악의 신호와 변화를 알린다. · 우(비): 장구.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소리. 곡의 기본적인 리듬을 안내한다. · 풍(바람): 북. 낮고 넓게 울리는 소리. 곡 전체에 힘과 안정감을 준다. ·뢰(천둥): 징. 크고 길게 울리며 공간을 가득 채우는 소리. 자연의 변화와 큰 울림을 표현한다. <p>“이처럼 사물놀이는 구름.비.바람.천둥의 자연을 소리로 표현한 음악입니다.”</p>	<p>교사는 학생들이 활동지를 잘 작성하고 있는지 순회지도한다.</p>
정리	<p>1. 정리 및 다음 시 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묻고 답하며 정리하는 시간 갖기 - 다음 차시 예고 <p>* 사물놀이와 같이 자연의 소리도 음악이 될 수 있다.</p>	5분

00중학교

자연을 담은 소리

학년/반 : _____

이름 : _____

활동 1) 음악을 감상한 후 적어보아요!

곡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이 곡을 들은 후 자신의 감상평을 간단히 적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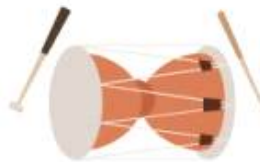
이 곡은 무엇을 묘사하고자 한 곡일까요?

활동 2) 자연을 담은 소리-사물놀이(운우풍린)

사물놀이의 악기들은 자연을 어떠한 표현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적어봅시다!



악기 이름:
묘사하고자 한 것:
감상평:



악기 이름:
묘사하고자 한 것:
감상평:



악기 이름:
묘사하고자 한 것:
감상평:



악기 이름:
묘사하고자 한 것:
감상평:

생태주의 교육 수업 계획 및 지도안 -2차시

1. 수업의 개요

단원명	자연의 소리 찾아보기 - 교실 밖 소리 듣기	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성취 기준	<p>[9음02-04] 생활 속에서 음악을 들으며 다양한 감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한다</p> <p>[9음03-04] 생활 속의 영역과 연계하여 음악을 만들고 활용하며 책임감을 갖는다</p>		
관련 교과 역량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 음악적 감성 역량</p> <p>■ 음악적 창의성 역량</p> <p>□ 음악적 자기주도성 역량</p> </div> <div style="width: 45%;"> <p>□ 음악적 공동체 역량</p> <p>□ 음악적 소통 역량</p> </div> </div> <p>음악적 감성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 밖 자연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소리의 특징(높낮이, 세기, 길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p>음악적 창의성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 밖에서 들은 다양한 소리를 음악적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분류하거나 연결 지어 표현할 수 있다.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 밖에서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를 탐색하고 소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실 밖에서 들은 자연의 소리를 음악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음악 표현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2. 수업계획

주제	자연의 소리 감상하기	차시	3차시 중 2차시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 밖에서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를 탐색하고 소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실 밖에서 들은 자연의 소리를 음악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음악 표현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주요학습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리의 구성과 결합 탐색 		
주요학습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 밖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소리의 특징을 설명한다. 교실 밖 자연의 소리를 음악적 관점에서 분류하고 분석한다. 		
교과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성 역량		
평가 방법	조별 발표, 과정 평가		
학습 자료	야외수업, 활동지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 유의점
도입	1. 인사 및 주변 정리하기 -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야외에서 맞이하는 음악시간입니다. 좋은 날씨에 야외수업을 하게 되어 더욱 기분이 좋죠? 모두 함께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게 수업에 더욱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흥미 유발하기 - 가장 가까이에서 들리는 소리 찾기 - 가장 멀리에서 들리는 소리 찾기 - “여러분, 오늘은 눈을 감고 귀는 쫓긋 열어 소리를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아요!” 3. 학습 목표 제시하기 -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모두 다 함께 읽는다.	5분	학생들이 집중하여 소리를 찾을 수도 록 지도한다.
전개	<활동 1> 교실 밖 자연의 소리 듣기 - 학생들과 함께 교실 밖 운동장 한 편에서 모인다. - 교사는 4인 1조씩 조를 편성한 후 각 조 별로 초시계를 배부한다. - “여러분, 조별로 운동장 내 원하는 곳에서서 2분동안 눈을 감고 소리를 들어보아요. 소리를 감상하	35분	교사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p>는 2분 동안은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집중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조별로 흩어져 각자의 장소에서 초시계를 맞춰 2분 동안 자연의 소리를 감상한다. - 학생들은 감상한 소리를 바탕으로 활동지를 작성한다. <p>(활동지에는 소리의 높낮이, 반복, 크기, 길이 등을 작성하는 칸이 있다.)</p> <p><활동 2> 자연의 소리 정리하고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모든 학생이 소리 감상을 마쳤는지 파악한 후 이어서 안내한다. “여러분, 이제는 감상한 소리를 바탕으로 활동지의 뒷장을 작성해봅시다. 내가 들었던 소리의 특징을 이제는 문장으로 적어보아요. 또 비슷한 소리들을 묶어보기도 하고, 특이한 소리를 찾아보기도 할게요.” - 학생들은 계속해서 활동지를 작성한다. - 활동지에는 <활동1>에서 감상한 소리를 음악적 요소로 표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소리의 특징을 글로 적어보며, 비슷한 소리를 묶고 다른 소리를 구별한다. - 교사는 모든 학생이 활동지를 작성한 것을 확인한 후 조별로 서로의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하도록 지도한다. - 이 과정에서 교실 밖에서 들은 다양한 소리를 인식하고 같은 장소지만 서로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공유한다. 		<p>이동의 범위를 설정한다.</p> <p>교사는 학생들이 활동지를 잘 작성하고 있는지 순회지도한다.</p>
정리	<p>1. 정리 및 다음 시 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들은 자연의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답하며 수업을 정리한다. - 다음 차시 예고 <p>* 교실 밖 자연의 소리도 음악이 될 수 있다.</p>	5분	

00중학교

학년/반 : _____

자연의 소리 감상하기

이름 : _____

활동 1) 자연의 소리를 감상한 후 적어보아요!

어디에서 소리를 들었나요?

눈을 감았을 때 어떤 소리들이
들렸나요?

이 소리의 느낌은 어떠했나요?

소리를 들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소리의 특징은 어떠했나요?
(높낮이, 크기, 반복, 길이 등)

이 소리도 음악이 될 수 있을까요?

활동 2) 자연의 소리에 더욱 깊이 들어가보아요!

활동 1에서 적은 '자연의 소리' 중 비슷한 분류로
묶어봅시다. 어떤 기준으로 묶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활동 1에서 적은 '자연의 소리' 중 다른 것들로는
묶이지 않는 독특한 소리가 있나요?
어떤 소리 인가요?

생태주의 교육 수업 계획 및 지도안 - 3차시

1. 수업의 개요

단원명	자연의 소리로 음악 만들기	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성취 기준	[9음03-03] 음악의 요소와 특징을 활용하여 간단한 형식의 음악을 만든다. [9음03-04] 생활 속의 영역과 연계하여 음악을 만들고 활용하며 책임감을 갖는다.		
관련 교과 역량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적 감성 역량 ■ 음악적 창의성 역량 ■ 음악적 자기주도성 역량 </div> <div style="width: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적 공동체 역량 □ 음악적 소통 역량 </div> </div>		
	<p>음악적 감성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소리를 소재로 한 음악을 만들며 소리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와 흐름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음악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p>음악적 창의성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소리를 음악적으로 구성하며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p>음악적 자기주도성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구성되어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소리를 활용한 사운드시케이프를 만들 수 있다. • 모둠별로 만든 사운드시케이프를 발표하고 감상하며 자신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수용할 수 있다. 		

2. 수업계획

주제	자연의 소리로 음악 만들기 - 사운드시케이프	차시	3차시 중 3차시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소리를 활용한 사운드시케이프를 만들 수 있다. • 모듈별로 만든 사운드시케이프를 발표하고 감상하며 자신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수용할 수 있다. 		
주요 학습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주요 학습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차시 들었던 자연의 소리를 활용하여 사운드시케이프를 작곡한다. • 조별로 만든 사운드시케이프를 발표하고, 다른 조가 만든 사운드시케이프를 감상한다. 		
교과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성 역량, 음악적 자기주도성 역량		
평가 방법	조별 발표, 과정 평가		
학습자료	스마트 칠판, 개인용 테블릿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 유의점
도입	<p>1. 인사 및 주변 정리하기</p> <p>- “여러분, 오늘은 자연의 소리를 주제로 한 수업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소리를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거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음악시간을 보내요!”</p> <p>2. 흥미 유발하기</p> <p>- 사운드시케이프의 예를 들려준다.</p> <p>- 교사는 “여러분, 이 소리는 무엇을 묘사하고자 한 걸까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사운드시케이프를 알려준다.</p> <p>-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운드시케이프를 응용하여 음악을 만들 것을 예고한다.</p> <p>*사운드시케이프: 인간이 인식하는 환경의 소리 전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연음,인공음,인간의 소리 등등 모든 것이 포함되며 소리들이 어루어져 하나의 ‘소리 풍경’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p> <p>3. 학습 목표 제시하기</p> <p>-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모두 다 함께 읽는다.</p>	5분	학생들이 ‘사운드시케이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를 준비한다.
전개	<p><활동 1> 자연의 소리를 음악으로 만들기 (사운드시케이프 응용)</p> <p>- 지난 시간에 이어, 편성된 조별로 활동을 진행한다.</p>	35분	교사는 학생들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학생들이 2차시에 탐색하고 정리한 자연의 소리를 떠올리며, 표현하고 싶은 자연의 분위기나 장면을 정하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은 태블릿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소리를 활용하여 자연의 소리를 표현한다. 예: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목소리를 녹음, 바디 퍼커션을 녹음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내의 다양한 악기를 사용할 수 있다. - 학생들은 소리의 순서, 반복패턴, 셈여림, 구성의 변화 등을 사용하여 짧은 음악을 만들어낸다. <p>*태블릿 어플리케이션 사용의 예: Garage Band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다.</p> <div data-bbox="539 869 991 1205" data-label="Image"> </div> <p><활동 2> 자연의 소리로 만든 음악 발표하고 감상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모둠이 만든 사운드스케이프 응용 음악을 발표한다. - 모든 모둠이 발표를 마친 후, 음악을 들으며 감상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예: 음악을 들으며 어떤 자연의 소리가 떠올랐는지, 어떤 장소가 떠올랐는지, 소리의 사용은 어떠한지 등) - 교사는 서로의 음악을 듣고 감상평을 나누는 후, 같은 자연도 서로 다른 소리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p>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사용법을 지도한다.</p> <p>교사는조별 발표 진행 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주의한다.</p>
정리	<p>1. 정리 및 다음 시간 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시에 걸쳐 이루어진 수업에 대한 정리 *모든 소리는 음악이 될 수 있다. 함께 나눈 음악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공유와 감상의 대상이다. 	5분

2) 문화다양성 음악교육 (3차시)



뉴질랜드 민요 <Pōkarekare Ana> 수업 계획 및 지도안


1. 수업의 개요

단원명	음악과 문화 - 세계의 민요	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성취 기준	[9음01-02] 음악 요소와 음악적 특징을 살려 노래나 악기로 발표하고 평한다 [9음02-02]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적 특징과 음악의 구성을 파악한다.		
관련 교과 역량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 음악적 감성 역량</p> <p>□ 음악적 창의성 역량</p> <p>□ 음악적 자기주도성 역량</p> </div> <div style="width: 45%;"> <p>■ 음악적 공동체 역량</p> <p>□ 음악적 소통 역량</p> </div> </div>		
	<p>음악적 감성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전반적 구성과 리듬·선율·형식 등을 익혀 노래로 표현할 수 있다. <p>음악적 공동체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국가의 음악 속에서도 공통된 구조와 음악적 참여 방식을 발견하여 음악이 문화와 지역을 넘어 인간을 연결하는 공동체적 표현임을 설명할 수 있다.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Pōkarekare Ana>를 두 성부로 나누어 원어로 노래 부를 수 있다. 우리나라 민요와 뉴질랜드 민요 <Pōkarekare Ana>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의하여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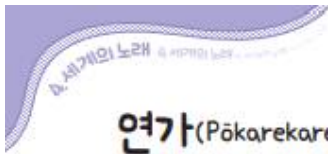
2. 수업계획

주제	뉴질랜드 민요 <Pökarekare Ana>	차시	3차시 중 1차시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ökarekare Ana>를 두 성부로 나누어 원어로 노래 부를 수 있다. • 우리나라 민요와 뉴질랜드 민요 <Pökarekare Ana>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의하여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주요 학습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주요 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ökarekare Ana>를 두 성부로 나누어 원어로 노래 부르기 • <아리랑>과 <Pökarekare Ana>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의하기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공동체 역량, 음악적 창의성 역량		
평가 방법	모둠별 발표, 과정 평가		
학습 자료	스마트 칠판, 피아노, 개인용 태블릿, 활동지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1. 인사 및 주변 정리하기 - 'Kia ora!'라고 인사하고 시작하기 - Kia: ~이 되기를, ora: 건강, 생명이라는 뜻을 설명하면서 상대의 안녕과 삶을 함께 바라는 인사라는 것을 알려주며 인사 나누기 2. 흥미 유발하기 - 뉴질랜드 하카(Haka) 영상 시청하기	5분	교사는 학생들이 하카 영상에 집중하되 웃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흥미를 유발한다.

	 <p>https://www.youtube.com/watch?v=qs7Py7Pl1J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몸을 크게 움직일까요? 싸움을 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하고 답하기 - 하카는 자신의 몸을 부풀려 상대방에게 겁을 주어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싸움을 위한다기보다 평화를 위한 몸짓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마오리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다. -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정체성과 존엄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비단 전쟁만이 아닌 평화와 환영의 의미로, 분쟁을 피하고 마오리족의 존재를 분명히 알리는 의미도 있다. 오늘날에는 환영식, 졸업식, 추모식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p>3. 학습 목표 제시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모두 다 함께 읽는다. • <Pökarekare Ana>를 두 성부로 나누어 원어로 노래 부를 수 있다. • 우리나라 민요와 뉴질랜드 민요 <Pökarekare Ana>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의하여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전개	<p><활동 1> 뉴질랜드 민요 <Pökarekare Ana> 2중창 하기</p> 	<p>성 부 를 나 누 어 곡 을 익 힐 때 익 숙해지도 록 여러 번 반복 하여 진 행한다.</p> <p>35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ökarekare Ana> 감상하고 어떤 분위기인지 이야기 나누기 - 교사가 피아노를 치며 모두 다 같이 멜로디 익히기 - 2성부로 나누어 반복하여 노래 익히기 (원어로 부르기) - 분단을 나누어 불러보기 - 가사와 화음에 집중하며 다같이 불러보기 <p><활동 2> 아리랑 vs 포카레카레 아나 비교 및 토의하기</p>  <p>https://youtu.be/hKFxLkcqEp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리랑> 짧게 감상하기 - <아리랑>의 가사를 떠올리며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 나누기 - 짝을 지어 나누어 준 활동지에 답 해보기 - 활동지 작성 후 발표하기 		<p>짝 활동을 진행할 때 사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순회지도하며 과정 평가한다.</p>
정리	<p>1. 정리 및 다음 시 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은 문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묻고 답하며 정리하는 시간 갖기 - 다음 차시 예고 <p>* 음악은 표현 방식의 차이를 넘어 공동체의 감정과 관계를 잇는 문화적 언어이다.</p>	5분	<p>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음악을 통해 음악은 공동체의 감정과 관계를 잇는 문화적 언어임을 상기시킨다.</p>

제재곡 악보 (출처: 2022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음악과 생활 ①)



연가(Pökarekare Ana)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리듬적 특징을 살려 2부 합창으로 노래 부를 수 있다.

Andantino 이명원 역사 | 뉴질랜드 민요

G G C C/B

비바람이치던 바다 잔잔해 - 저 - 오 먼
 밤하늘에반짝이 는 별빛도아름답지 만
 Pō - ka - re - ka - re a - na Nga - wai o Wai - a - pu
 포 - 카 레 카 레 아 나 나 - 와이 오 와이 이 푸 -

Am D G

오늘그대오시러 나 저 - 바다건너서
 사랑스런그대 눈 은 더옥아름다워라
 Whi - ti a - tu koe e hi ne Ma - ri - no a - na e
 휘 티 아 투 코 에 히 네 마 리 노 아 나 에

오 먼 오늘그대오시러 나 저 - 바다건너서
 지 만 사랑스런그대 눈 은 더옥아름다워라
 pu Whi - ti a - tu koe e hi ne Ma - ri - no a - na e
 - 휘 티 아 투 코 에 히 네 마 리 노 아 나 에

G G7 C G

그대만 을 기다리 리 내사 랑
 E hi - ne e Ho - ki mai ra Ka mate a -
 에 히 네 에 호 키 마이 라 키 마테 아

D 1. G 2. D7 G

영원히 기다리 리 기다리 리
 hau i Te ro - ha e Te ro - ha e
 하우 이 테 로 하 에 테 로 하 에



뉴질랜드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동남쪽에 있는 섬나라이다. 주민은 소수의 마오리족 외에 대부분 영국계 백인이며 주요 언어는 영어이다.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민요로 원제목은 '영원한 밤의 우정'이라는 뜻의 '포카레카레 아나(Pökarekare Ana)'이다.



1 첫 박의 4분음표(♩)에 유의하여 옆 친구의 손바닥을 치며 2부 합창으로 노래 불러 보자.

<Pōkarekare Ana 활동지>

학년 반 이름

♪ 듣고 느끼기

1. <포카레카레 아나>를 부르며 떠오른 느낌이나 장면을 적어보세요(예 : 강, 조용함...)
2. <아리랑>을 들으며 떠오른 느낌이나 장면을 적어보세요. (예 : 이별, 고개...)

♪ 감정 비교해보기



3. 두 노래에 공통으로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4. 두 노래의 느낌이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음악 살펴보기

5. <포카레카레 아나>의 음악적 특징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6. <아리랑>에서 들리는 음악적 특징을 한 가지 적어볼까요?
(예 : 느린 빠르게, 반복되는 가사...)





♪ 문화로 생각해보기


7. 왜 두 나라 사람들은 노래로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8. 두 노래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문화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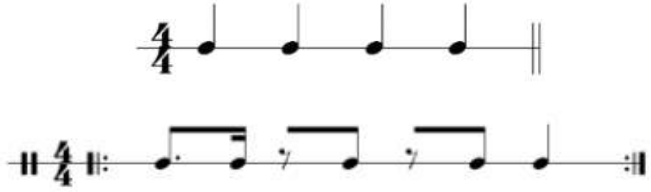

♪ 나의 생각 정리하기

9. 이 두 노래를 통해 “음악은 문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



2. 수업계획


주제	케냐 민요 <잠보>	차시	3차시 중 2차시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민요에 어울리는 리듬을 연주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 • 케냐 민요 <잠보>와 우리나라 민요 <옹헤야>를 비교하여 두 민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주요 학습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리듬꼴, 메기고 받는 형식 		
주요 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냐 민요 <잠보>의 3-2 손 클라베 리듬꼴을 신체 표현으로 나타내며 노래하기 • 케냐 민요 <잠보>와 우리나라 민요 <옹헤야>를 비교하여 두 민요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아내기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공동체 역량		
평가 방법	과정 평가, 관찰 평가		
학습 자료	스마트 칠판, 개인용 태블릿, 활동지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 유의점
도입	<p>1. 인사 및 주변 정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차시에 배운 뉴질랜드 인사말을 기억하는지 확인하며 인사하기 'Kia Ora!' - 'Jambo!'라고 인사하고 시작하기 - 선생님께 인사할 때는 공손한 표현인 'Jambo bwana!' <p>2. 흥미 유발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온킹 ost <하쿠나 마타타>를 영상으로 제시하며 '하쿠나 마타타'가 무슨 뜻인지 추측하기  <p>https://www.youtube.com/watch?v=kaOIxll4LCA&list=RDkaOIxll4LCA&start_radio=1</p> <p>3. 학습 목표 제시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모두 다 함께 읽는다. 	5분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에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민요에 어울리는 리듬을 연주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 • 케냐 민요 <잠보>와 우리나라 민요 <옹헤야>를 비교하여 두 민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p>전개</p>	<p><활동 1-1> 케냐 민요 <잠보> 노래 익히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보>의 가사를 읽고 어떤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인지 이야기 나눠 보기 - 스와힐리어 원어로 가사를 이해하며 곡을 익히기 (이 때, 콜 앤 리스폰스 형식으로 교사가 선창하고 학생들이 후창하는 방식으로 노래하기) <p><활동 1-2> 3-2 손 클라베 리듬꼴 익히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그룹은 메트로놈처럼 일정한 4분음표 박수 정박으로 치기, B그룹은 3-2 손 클라베 리듬을 치기 (바꾸어서도 연습) - 노래를 부르며 동시에 3-2 손 클라베 리듬꼴 신체 표현해보기 <p><활동 2> 모듬별 3-2 손 클라베 리듬 신체 표현하며 노래 부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별로 콜 앤 리스폰스 역할을 나누어 배운 리듬꼴에 맞추어 신체 표현하며 노래 연습하기 - 모듬별로 리듬 신체 표현하며 노래를 발표하기 <p><활동 3> 우리나라 민요 <옹헤야>와 <잠보> 비교 및 토의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옹헤야>를 짧게 감상하기  <p>https://www.youtube.com/watch?v=4DR0HKgtIE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별로 <옹헤야>의 메기고 받는 형식과 <잠보>의 콜 앤 리스폰스를 비교하며 토의하기 • 노래하는 방식(혼자/함께) • 메기고 받는 구조의 유무 	<p>35분</p>	<p>스와힐리어나 리듬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여러 번 반복한다.</p> <p>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문화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한다.</p> <p>두 곡 모두 공동체 활동을 돕는 민요임을 강조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듬의 반복성 • 노래가 사용되었을 것 같은 상황 <p>- 모둠별로 발표하기</p>		
정리	<p>1.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보>의 3-2 손 클라베 리듬과 신체 표현을 복습하기 - “어떻게 서로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노래 방식이 있을까?” 질문 - 다음 차시 예고하기 <p>* 음악은 문화를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수업 마무리</p>	5분	서로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노래 방식이 있는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게 한다.

제재곡 악보 (출처: 2022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음악과 생활 ①)

잠보(Zambo)

 아프리카 민요에 어울리는 리듬을 연주하여 노래 부를 수 있다.

Moderato 역사와 마상 | 케냐 민요



잠보 - 잠보 그대 - 칼게시 나오 - 그림자 있죠 - 어
Jam-bo - Jam-bo Bwa-na - Ha-ba-ri ga-mi - Ma-zu-ri sa-na - Wa
잠 보 - 잠 보 보라 나 - 하 버 리 가 니 - 모 주 리 사 나 - 의



러분 - 다관영 해요 - 케냐 물론 - 하루나마 타타 -
ge-ni - wa-ka-ri bi-shwa - Kenya ye-tu - Ha-ku-na Ma ta-ta -
게 니 - 와 카 리 비 슈 아 - 케 니 예 투 - 하 쿠 나 마 타 타 -



잠보 - 잠보 그대 - 칼게시 나오 - 그림자 있죠 - 어
Jam-bo - Jam-bo Bwa-na - Ha-ba-ri ga-mi - Ma-zu-ri sa-na - Wa
잠 보 - 잠 보 보라 나 - 하 버 리 가 니 - 모 주 리 사 나 - 의



러분 - 다관영 해요 - 케냐 물론 - 하루나마 타타 -
ge-ni - wa-ka-ri bi-shwa - Kenya ye-tu - Ha-ku-na Ma ta-ta -
게 니 - 와 카 리 비 슈 아 - 케 니 예 투 - 하 쿠 나 마 타 타 -



케냐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적도 위에 있는 국가이다. '케냐'라는 국명은 아프리카에서 킬리만자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봉인 케냐산(Kenya)에서 따온 것이다.



② '잠보'는 케냐, 탄자니아 등의 아프리카 동부에서 쓰는 스와힐리어로 '민남'이라는 뜻이며 밝고 활기찬 분위기의 노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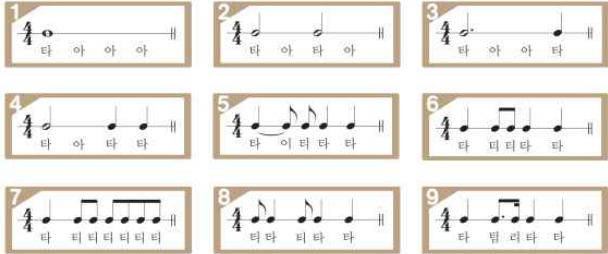
활동*

1 제재곡에 맞추어 모듬별로 리듬을 연주하여 노래 불러 보자.

2. 수업계획

주제	5음 음계 민요 창작	차시	3차시 중 2차시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인 중국 민요와 일본 민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다. • 5음 음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5음 음계 가락을 창작할 수 있다. 		
주요 학습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분의 4박자, 5음 음계 		
주요 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민요 <모리화>와 일본 민요 <사쿠라 사쿠라>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아내기 • 5음 음계가 무엇인지 배우기 • 창작을 위한 4분의 4박자 리듬꼴 익히기 • 모듬별로 모여 앉아 간단한 가락 창작하고 발표하기 		
역량	음악적 공동체 역량, 음악적 창의성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평가 방법	과정 평가, 관찰 평가, 모듬별 발표		
사용할 학습 자료	스마트 칠판, 피아노, 개인용 태블릿, 활동지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1. 인사 및 주변 정리하기 - ‘니하오’, ‘곤니찌와’ 중국어와 일본어로 인사 나누며 수업을 시작하기 2. 흥미 유발하기 - “여러분은 꽃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생각나는 장면이나 상황,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 학생들과 느낌 나누기 3. 학습 목표 제시하기 -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모두 다 함께 읽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인 중국 민요와 일본 민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다. • 5음 음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5음 음계 가락을 창작할 수 있다. 	5분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에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도록 질문으로 흥미를 유발한다.
전개	<활동 1-1> 중국 민요 <모리화> 감상하기 - <모리화>의 가사를 읽어보며 듣기 전에 어떤 곡일지 상상하고 이야기 나눠보기 - <모리화>를 감상하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상황에서 작곡되고 또 부르는 곡일지 이야기 나눠보기	35분	중국과 일본의 민요가 낯설 수 있으니, 미리 종이를 나누어 주어 적으

	 <p>- 모리화의 이미지를 보며 음악을 한 번 더 감상하고 꽃과 어울리는지 생각하고 이야기 나눠보기</p> <p><활동 1-2> 일본 민요 <사쿠라 사쿠라> 감상하기</p> <p>- <사쿠라 사쿠라>의 가사를 먼저 읽어보며 어떤 느낌의 곡일지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기</p> <p>- <사쿠라 사쿠라>를 감상하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상황에서 부르는 곡일지 상상해보기</p>  <p>- 사쿠라의 이미지를 보며 음악을 한 번 더 감상하고 꽃과 어울리는지 생각하고 이야기 나눠보기</p> <p><활동 2> 5음 음계 배우기</p> <p>- 교사가 피아노로 도-레-미-파-솔-라-시를 친다.</p> <p>- 두 곡 모두 도-레-미-파-솔-라-시에서 두 음을 빼 음계를 사용했음을 말해주며 어떤 음이 빠졌을지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기</p> <p>- 파, 시를 빼 '도-레-미-솔-라'로만 이루어진 5음 음계임을 알려주기</p> <p>- 파, 시를 빼 음계가 어떻게 들리는지 피아노로 치며 이야기 나누기</p> <p><활동 3> 4분의 4박자 5음 음계 가락 창작하기</p> <p>- 간단한 4분의 4박자 리듬꼴 손뼉치기 (코다이 리듬꼴)</p>	<p>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p> <p>다른 나라의 민요를 감상할 때 진지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교사가 먼저 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p> <p>초등학교에서 배웠을 코다이 리듬꼴을 복습하는 느낌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한</p>
--	--	--

	 <p>1. 타 아 아 아 2. 타 아 타 아 3. 타 아 아 타 4. 타 아 타 타 5. 타 이타타 타 6. 타 티타타 타 7. 타 티티티티티티 8. 티타 티타 타 9. 타 텨티타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별로 ‘꽃’이라는 주제에 맞게 4분의 4박자 5음 음계 8마디 가락 창작하기 - 꽃의 종류는 태블릿 pc로 검색하여 모듬별로 정할 수 있게 한다. - 모듬별로 어떤 꽃을 주제로 정했는지, 어떤 상황이나 장면을 상상하며 작곡했는지, 가사까지 적었다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한 뒤 창작 가락을 발표한다. 		<p>다.</p> <p>모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어 모듬별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p>
정리	<p>1.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모듬이 선택한 꽃과 가장 어울리는 곡을 창작했는지 거수로 투표하기 - 5음 음계는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야기 나누기 - 다음 차시 예고 <p>* 오늘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민요를 통해 같은 5음 음계를 사용하더라도 문화에 따라 음악의 표현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듬별로 창작한 가락도 모두 달랐죠. 서로 다른 틀림이 아니라, 각 문화가 가진 특별하고도 고유한 방식입니다.</p>	5분	<p>같은 5음 음계가 국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나눈다.</p>

제재곡 악보 (출처: 2022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음악과 생활 ①)

모리화(茉莉花)

중국과 일본 민요의 음계를 이해하고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를 수 있다.

서정적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세계음악 연구팀 역사 | 중국 민요

안 송 이 아 름 다 운 모 리 - 화 안 송 이 아 름 다 운
好 一 朵 美 - 丽 的 茉 莉 - 花 好 一 朵 美 - 丽 的
하오 미두어 메이 리 다 모 리 - 화 하오 미두어 메이 리 다

모 리 - 화 가 지 마 다 - 님 치 는 그 음 한
茉 莉 - 花 芬 芳 美 麗 - 滿 枝 挂 着 香 甜 -
모 리 - 화 편 편 제마 리 - 연 표 예 묘 실 -

향 기 의 하얀 - 꽃 아 름 다 운 꽃 음 천 구 에 게
又 白 - 入 人 - 心 的 美 丽 的 花 香 遍 天 下
요 백 미 현 칸 - 괴 맵 - 귀 리미 민 니 피 미 시

안 송 이 브 내 연 - 다 모 리 화 - 모 - 리 - 화 -
送 给 - 伟 - 人 - 排 茉 莉 花 - 茉 - 莉 - 花 -
송 곡 이 비 해 연 - 차부 모 리 화 - 모 - 리 - 화 -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부에 위치한 사회주의 국가로, 14억 명이 넘는 세계 최대 인구의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이다. 수도는 북경(베이징)이며, 5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 음악은 주변 여러 나라의 음악에 영향을 끼쳤다.



◎ "무관도르" 중

⑧ 재스민꽃인 모리화의 아름다움과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중국 민요 푸치나의 오메라 "무관도르" 제막에서 어린이들의 협창으로 차용되었다.

사쿠라(さくら)

Moderato 김재근 반안 | 일본 고요

빛 꽃 이 빛 꽃 이 산 과 들 도 따 율 - 도 딸 리 - 마 라
さ く ら さ く ら 수 요 이 の そ ろ - は 미 와 - 타 키
사 쿠 라 사 쿠 라 아 유 이 노 스 리 - 화 미 의 - 티 스

보 - - 니 안 개 연 가 구 용 인 가 아 침 해 에 빛 나 - 네
か げ - り か す み が く も - か あ き 다 に に お - う
카 기 - 리 카 스 미 가 쿠 모 - 카 아 사 히 나 니 오 - 우

빛 꽃 이 빛 꽃 이 만 별 하 - 였 네
さ く ら さ く ら 하 나 은 - 가 리
사 쿠 라 사 쿠 라 히 나 자 - 가 리



일본은?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걸쳐 4개의 큰 섬과 수천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며, 수도는 도쿄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세기에 걸친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 "나비 부인" 중

⑧ 일본의 대표적인 고요(옛 노래)로 봄을 맞이하는 축제에서 불렀으며 푸치나의 오메라 "나비 부인" 제막에 삽입되었다.

2. 차시별 수업계획

주제	서양 여성 작곡가 탐구로 성평등 문제 상황 인식하기 (클라라로 보는 낭만시대 가곡)	차시	3차시 중 1차시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낭만시대 가곡의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음악을 감상하며 음악적 요소를 근거로 자신의 인상과 해석을 설명할 수 있다. • 음악에 대한 평가·비평을 공정한 언어와 근거를 바탕으로 글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 요소	낭만시대 음악, 가곡(Lied)		
주요 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곡가 떠올리기로 여성 작곡가가 덜 보이는 구조적 원인 파악하기 • 곡 1 감상하며 핵심 구간에서 피아노 반주의 확장된 역할 이해하기 • 곡 2 감상하며 가사를 표현하는 음악 기법 분석하기 • 19세기 평론 읽고 성차별 표현 고친 현대 관점의 비평문 쓰기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평가 방법	과정중심 포트폴리오 학습목표1(낭만 가곡 특징 이해): 활동지 정리 확인(관찰 체크) 학습목표2(근거 기반 감상 설명): 음악적 근거 2개(요소+특징) 포함 여부, 설명의 타당성(활동지) 학습목표3: 비평문 표현		
학습 자료	음원1 「Ich stand in dunklen Träumen», 음원2 「Liebeszauber», 가사 1~2줄 자료('den grünen Wald entlang'), decrescendo 표시 악보 일부, 활동지(근거 기록+이중시점 비평문)		
단계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 유의점
도입 (7분)	1. 인사 및 주변 정리하기 (1분) - 인사를 하고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오늘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근거로 말하기를 약속합니다." 2. 흥미 유발하기: 작곡가 떠올리기 (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클래식 음악가/작곡가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3명만 말해볼까요?" • 학생 응답을 칠판에 기록 • 재질문: "지금 나온 이름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 교사 정리: "지금 나온 이름이 남성 중심이라면, 그 이유는 '여성이 못해서'가 아니라 시대의 구조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은 그 구조를 음악 감상으로 확인해봅시다." 3. 클라라 소개 (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기 음악적 배경 • "베토벤 이후 낭만주의 시대죠. 음악이 개인의 감정을 직접 드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한다

	<p>러내는 도구가 되던 때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라라 슈만 소개 "클라라 슈만은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지금은 로베르트 슈만의 아내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작곡가로서도 수준 높은 작품을 여럿 남겼어요." 당시 사회 배경 "문제는 당시 여성에게 전문 음악교육, 출판, 공연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악은 여성에게 '교양'일 뿐이었고, 그래서 여성 작곡가의 이름은 기록에서 쉽게 사라졌습니다." <p>4. 수업내용 안내 및 학습 목표 제시하기 (2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안내 "오늘은 클라라의 가곡을 들으면서, 음악 안에서 근거를 찾아 작품 자체를 평가해볼 겁니다. 그리고 관점이 바뀌면 같은 곡에 대한 비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써보면서 확인할 거예요."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모두 다 함께 읽는다. 	<p>▶작곡가를 소개할 때 과도한 정보를 설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설명을 3문장 내로 정리한다.</p>
전개	<p>활동 1 곡 1 감상: 근거를 만드는 듣기 (10')</p> <p>클라라 슈만의 '나는 어둠 꿈속에서 있네' (Ich stand in dunklen Träumen) 감상하고 음악적 특징 파악하기</p> <p>1. 1차 전체 감상 (4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과제: 짝궁과 음악을 듣고 떠오르는 느낌과 이미지와 가장 강한 인상을 나눈다. 교사는 설명 없이 아이들이 순수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독려만 한다. <p>2. 구간① 전주 1~8마디 듣기 (2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과제: 피아노가 만든 정서 한 단어로 표현하기 교사 설명: "전주는 곡의 '정서 배경'입니다. 노래 시작 전에 피아노가 화자의 마음 상태를 먼저 깔아줍니다." 재감상하기 <p>2. 구간② A a부분 듣기 (2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과제: 피아노와 성악 관계를 파악한다. (겹침, 대화, 받침의 역할인가? 그 이유는?) 교사 설명: "남만 가곡에서 피아노는 단순 반주가 아니라 시(가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재감상하기 	<p>▶1차 감상은 먼저 듣기에 몰입하게 하고 이후 핵심 구간에서만 2가지 포인트를 정해 반복 청취한다.</p> <p>▶학생 반응이 "좋다, 슬프다"에서 멈추면, 그 느낌을 살리되 발표는 '느낌→근거' 문장틀로만 받는다.</p>

	<p>3. 구간㉓ B부분 (18마디) 듣기 (2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과제: 비슷한 선율이 다시 나오는 지점 표시하고 반복이 주는 효과를 적는다. • 교사: “선율 재료가 반복되면, 곡은 특정 정서를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응시/회상/고정).” <p>활동 2 곡 2 감상: 가사(표제) 표현을 근거로 잡기 (10')</p> <p>클라라 슈만의 '사랑의 마술'(Liebeszauber)을 감상하고 음악적 특징 파악하기</p> <p>1. 낭만주의 음악의 표제성 설명 (3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낭만주의는 개인의 정서를 중요한 주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작곡가는 정서를 ‘셈여림·반주·화성’ 같은 장치로 구체화해, 가사/표제의 장면을 소리로 그려요.” • “인상주의가 색채·질감으로 분위기를 그리듯, 낭만 가곡도 음악 장치로 장면을 그립니다.” <p>2. 핵심구간 감상하기 (4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과제: 작곡가는 ‘숲으로 흘러간다’는 가사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나요? “가사 ‘___’는 ___(음악기법) 때문에 ___(표현 효과)로 들린다.” • 핵심구간 듣기(m8 부근) ‘den grünen Wald entlang(녹색 숲을 따라)’ • 교사 설명 “여기서는 decrescendo(점점 작게)가 쓰여 소리가 멀어지는 방향성을 만듭니다. 이 장치는 단지 ‘감상적’이라서가 아니라, 가사의 공간 이동(숲속으로 들어감/멀어짐)을 소리의 크기 변화로 번역한 겁니다. 인상주의가 색채·질감으로 ‘분위기’를 그리듯, 낭만 가곡은 셈여림, 반주, 화성 같은 장치로 가사의 장면과 정서를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 재감상하기 <p>3. 재감상하여 음악적 표현 기법 정의하기 (3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과제: 근거 문장 작성하기 “가사 ‘___’는 ___(음악기법) 때문에 ___(표현 효과)로 들린다.” <p><활동 3> 19세기 평론 읽고 ‘오늘의 비평’으로 고쳐쓰기 (12')</p> <p>1. 원문에서 좋게 평가한 방향을 찾아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19세기 신문 평론 기사를 읽는다. 	<p>▶낭만주의를 감상적으로만 이해하지 않도록 교사가 연결 문장을 한 번 모델링해준다.</p>
--	--	--

	<p>자료 A: '기교 중심 평론' 찾기 자료 B: '성별을 전제로 한 평론' 찾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과제: 당대 평론은 어떤 말로 평가했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p>2. 오늘의 글로 고쳐쓰기 (1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요소: 음악적 근거 2개 이상 (키워드 제시) • 성별을 전제로 한 표현은 공정한 표현으로 수정하기 	
<p>정리 및 평가</p>	<p>1. 2~3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쓴 글 중 한 문장 낭독하기 <p>2. 교사 피드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상(느낌)'을 '근거(요소)'로 바꿔 말한 것을 위주로 피드백한다. <p>3. 포트폴리오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 제출 + 자기평가지 	<p>▶수업 마무리는 감상 소감으로 끝내기보다, 공정한 비평의 조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한다</p>

주제	해녀 노동요 이어도사나 제주 민요로 보는 '성별 규범'과 협력적 앙상블	차시	3차시 중 2차시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녀 사례를 통해 성규범의 의미와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 노동요 '이어도사나'의 메기고 받는 형식을 이해하고, 협력적으로 노래할 수 있다. • 생활 도구로 이어도사나의 장단을 표현하며 협력적인 타악 연주를 할 수 있다. 		
학습 요소	제주도 민요, 이어도사나 메기고 받는 형식, 자진모리 장단, 리듬 오스티나, 생활도구 타악(물허벅),		
주요 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도사나」 함께 부르기(메기고 받기) • 물통(허벅)으로 장단 치며 함께 연주하기 • 한삼춤놀이로 메기고 받기를 춤으로 표현하기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평가 방법	과정중심 포트폴리오 평가(관찰 + 활동지 + 자기평가) 목표1(성규범): 해녀 사례 근거 2개 포함 설명 여부(관찰/활동지) 목표2(메기고받기): 시작·끝·호흡 맞추기, 역할 교대 참여(관찰) 목표3(타악 앙상블): 물통 음색 2가지 사용, 자진모리/오스티나토 유지, 경청·조율 협력(관찰/기록)		
학습 자료	한삼(학생수), ppt, 빔 프로젝트		
단계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 유의점
도입 (10분)	1. 인사 및 주변 정리하기 (1분) - 인사를 하고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오늘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근거로 말하기를 약속합니다." 2. 흥미 유발하기: 성별 규범을 깨는 해녀의 삶을 뮤직비디오를 통해 이해하기 (6분) 1) 질문으로 개념 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 (철판 기록) • 교사 성규범 개념 제시: “지금 나온 단어들이 바로 성규범이에요. 성규범이란, 사회가 남자라면 혹은 여자라면 이렇게 해야한다고 정해 둔 기대와 규칙이죠” 2) 할망래퍼 - 이어도사나 영상 시청하기 (4분) 3) 가사로 해녀의 삶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면에 가사 2~3줄만 크게 제시하기 “진짜로 열심히 살았수다. 일은 내 삶이여.”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한다. ▶시간을 고려하여 도입의 배경 설명을 한다.

	<p>“살당 보낸 죽을 길도 다녔수다.” “내 힘으로 자식들도 키웠수다.”</p> <p>"방금 우리가 적은 '여성스러움' 단어들 기억나죠? 조용함, 단정함, 돌봄... 근데 이 가사 속 화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위험한 노동도 내가 감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특이한 개인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제주도라는 곳의 조건 때문이에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 환경, 생계 노동 필요 세금/공납 부담으로 해산물 채취 노동 강화 위험한 바다 일, 남성 부재 → 여성 노동 비중 확대 <p>해녀는 성역할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 삶의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예요.</p> <p>3. 수업 안내 및 학습목표 제시하기 (3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용 가사 “일은 재밌주만 가끔 힘들 때도 있어... 그럴 땐 노래를 부르자. 가슴이 트이도록. 힘들 때는 이어도사나 불렀수당.” • 오늘 배울 것은 이어도사나입니다. “좋아요. 오늘은 이 노래를 ‘감상’으로만 듣지 않고, 노동요가 실제로 어떻게 사람들을 버티게 하고 협력하게 만드는지 직접 해볼 거예요. 노래의 특징인 메기고 받기(선후창)로 서로 호흡을 맞추고, 장단을 생활도구 타악으로 만들어서, 우리 반만의 ‘출항 앙상블’을 완성해보시다.” • 학습목표를 제시하여 모두 다 함께 읽는다. 	
전개	<p>활동 1 「이어도사나」 함께 부르기(메기고 받기)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체 감상하기 2. ‘메기는 소리’ 노래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마디-따라부르기 반복 3. ‘받는 소리’ 노래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마디-따라부르기 반복 4. 메기고 받는 소리 개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노래는 혼자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여럿이 호흡을 맞추려고 부르던 노래예요. 한 사람이 먼저 부르고, 나머지가 같이 받아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p>▶메기고 받기는 “잘 부르기”보다 신호 맞추기가 목표임을 먼저 안내한다.</p> <p>▶성부 나누기 전에 교사가 ‘시작 손신호’를 정해주고 학생이 신호를 보고 들어오도록 훈련한다.</p>

<p>5. 역할 나눠서 붙여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 나눠서 노래 부르고 역할 교대하여 가창하기 <p>활동 2 물통(허벅)으로 장단 치며 함께 연주하기 (10')</p> <p>1. 허벅 소개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설명: “허벅은 제주에서 물을 길던 흙 물통이에요. 우리는 진짜 허벅 대신 물통, 바구니, 플라스틱 통으로 ‘허벅 소리’를 만들어볼 거예요.” <p>2. 소리 탐색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는 위치 2가지로 음색 대비 (1) 옆면(둔탁) (2) 입구, 테두리(맑음) “같은 물통인데도 어디를 치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요.” • 자진모리 기본 장단 치기 <p>3. 오스티나토로 3중주 합주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멜로디오스티나토는 해녀소리「이어도 사나」의 이디엄(Idiom) ‘이어도 사나’를 반복하여 노래와 오스티나토가 메기고 받든 소리의 연주형식을 살리고자 하였다. 전래놀이노래의 보르둔은 즉흥연주 화음반주로서 리듬은 자진모리 장단을 연주한다. 오스티나토와 보르둔을 점진적으로 붙여가며 2성부 합창에서 3성부 합창 등 다성부로 노래를 발전시킬 수 있다. 3성부는 오스티나토와 보르둔을 동시에 연주하여 구성할 수 있다 • 노래 부르면서 연주하기 해녀는 일하면서 노래했죠? 우리도 ‘노래하면서 리듬’으로 협력해봅시다. <p><활동 3> 한삼춤놀이로 메기고 받기를 춤으로 표현하기 (12')</p> <p>1. 규칙 안내 & 한삼 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이 활동은 말로 지시하면 실패해요. 눈으로 보고 맞추기가 목표입니다. 친구 다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주세요.” <p>2. The Mirro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가 리더(느린 8박) / B가 거울처럼 따라 하기 • 2분 후 교대로 진행하기 • 교사는 학생이 활동 후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 교사 설명: “거울은 ‘복사기’가 아니라 상대의 속도에 맞춰주는 파트너가 되었어요. 존중하며 합을 맞춰갔어요.” • 2번째 질문: “거울할 때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였어요? (속도, 	<p>▶장단 합주는 한 번에 붙이지 않고 리듬 오스티나토 →노래 엮기 순서로 단계화한다.</p> <p>특히 노래와 연주가 같이 갈 때는 연주를 작게/노래를 먼저 원칙을 제시한다.</p> <p>▶합주가 무너지면 “다시”보다 ‘멈춤-재시작 신호’로 정리한다. 앙상블은 신호가 곧 질서다.</p> <p>▶한삼 나눠주기</p>
---	--

	<p>눈맞춤, 작게, 멈춤신호)”</p> <p>3. The Robo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가 Controller, B가 따라하는 로봇되어 따라하고 교대로 진행하기 • 교사: “이번엔 느낌이 어땠나요? 한 사람이 계속 주도하면, 따라가는 사람은 힘들어져요. 일부러 관계가 불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 “따라하는 사람이 힘들었던 이유는 뭐였죠? (속도, 예고없음, 계속 지시, 바꿔주지 않음” <p>4. 출항 퍼포먼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벅 장단팀, 가창팀, 신체표현 팀으로 나눠 다음의 동작들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노래 구간: 후렴 또는 1절 짧게 • 동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젓기 (굴신+노젓기) ② 훌뿌리기 (반원) ③ 얼굴 가리기 (바람, 물보라) 	
정리 및 평가	<p>1. 자기평가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짝궁과 오늘의 성찰 나누기 “오늘 짝 활동에서 내가 지킨 ‘관계 규칙’은? ” • 자기평가 관찰 <p>(목표1) 성규범 설명: 근거 2개 말했는가? (목표2) 메기고/받기: 호흡·시작·끝이 맞았는가? (목표3) 앙상블/관계: 역할 교대·경청·조율이 있었는가?</p>	

주제	감정 어휘를 세분화하고, 음악 요소로 번역하여 '대처'가 담긴 짧은 음악 장면(음악극)을 창작하기	차시	3차시 중 3차시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을 세분화해 표현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감정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나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로 감정을 정확히 말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안전한 대처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 감정 표현과 대처 문장을 활용해 짧은 음악 장면을 협력적으로 구성하고 발표할 수 있다. 		
학습 요소	감정 어휘, 빠르기, 셈여림, 리듬, 음색, 대처 문장, 코러스(후렴), Freeze(멈춤 장면)		
주요 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어휘를 음악 어휘로 바꾸기 • '대처 문장'을 코러스(후렴)로 만들기 • 상황카드로 대처 음악극 만들기 		
역량	음악적 공동체, 음악적 창의성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평가 방법	교사 관찰 체크리스트(5항목), 모둠 활동지/포트폴리오(번역표, 코러스 기록, 장면 구성 체크), 동료평가, 자기성찰		
학습 자료	감정 단어 카드(큰 감정, 세부 감정 단어 목록), 대처 문장 카드 3종(멈춰줘, 불편해, 도와줘), 상황카드, 활동 진행 슬라이드(규칙, 시간, 과제 구조), 타이머/신호도구		
단계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 유의점	
도입 (4분)	1. 인사 및 수업 약속 (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오늘은 폭력 장면을 재현하는 연기가 아니라, 폭력을 예방하는 대처를 연습하는 수업입니다.” • 규칙 3가지 제시하기 (칠판, 슬라이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 경험 말하기는 선택(패스 가능) 2) 특정한 언급 금지('누구' 대신 '가상의 상황') 3) 불편하면 '스톱' 손신호로 멈출 수 있음. 2. 전시학습 연결 (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2차시 Mirror 활동에서 잘 맞추려면 뭐가 필요했죠?” (예상답변) 천천히, 눈 맞추기, 상대 속도 맞추기, 역할 바꾸기 • 교사: “그 '관계 규칙'을 오늘은 감정대처 상황에 적용해 볼 거예요.” 3. 오늘 활동 안내 (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은 감정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한 말로 세분화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 감정을 음악 요소로 바꿔 소리로 표현하고, 마지막엔 안전한 대처까지 넣어 짧은 장면을 만들 거예요.” • 학습목표를 제시하여 모두 다 함께 읽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시작 전에 핵심규칙을 확실히 전달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한다 	

전개	<p>활동 1 감정 어휘를 음악 어휘로 바꾸기 (12분)</p> <p>1. 감정을 세분화하여 단어로 표현하기 (2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지금부터 ‘좋다/나쁘다’ 금지! 대신 정확한 감정 단어로 좁혀봅시다.” 칠판에 큰 감정 3개 적기: 기분 좋음, 기분 나쁨, 긴장됨 학생은 그중 1개를 골라 세부 감정 단어 1개로 바꾸기 (예)기분 나쁨→서운함, 억울함, 불안함, 민망함, 답답함, 화남 “나는 ‘___’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___ 때문이다.” 교사: “감정을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도 덜 헛갈리고 상대도 덜 상처받게 말할 수 있어요.” <p>2. 감정 단어 선택하기 (2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칠판에 감정 단어 제시 모둠(3~4인)당 1개 감정 선택 교사: “방금 세분화한 단어 중 하나를 골라도 좋아요.” <p>3. 감정-음악 번역표 만들기 (5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지에 “감정 → 음악 어휘”로 바꿔 적기(최소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르기 (빠르게, 느리게, 점점 빨라짐, 멈칫) - 셈여림 (약하게, 강하게, 점점 커짐, 갑자기 작아짐) - 리듬 (츄츄, 퍽엄, 반복, 멈춤) - 음역·음색 (높게/낮게, 맑게/거칠게, 무겁게/가볍게 등) “단어를 예쁘게 쓰는 게 아니라, 들리게 만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답 없어요. 대신 근거가 있어야 해요. ‘왜’ 그 소리인지.” <p>4. 짝활동, 음악 표현하고 감정 맞추기 (3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짝궁과 타악, 바디퍼커션, 목소리로 10초 표현 다른 학생은 감정 맞추기(1개만) <p>활동 2 ‘대처 문장’을 코러스(후렴)로 만들기 (10분)</p> <p>1. 대처 3문장 제시하기 (2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설명: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다음은 ‘대처’예요. 대처는 길게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먼저 상황을 멈추고(Stop) 문제를 분명히 말하고(Name) 도움을 연결하는(Get help) 짧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멈춰줘.”, “그 말과 행동은 불편해.”, “도와줘. 같이 가줄래?” <p>2) 코러스 만들기 (5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장 중 1개를 골라 리듬을 붙여 2마디 후렴 만들기 예: A가 “멈-춰-줘!”(리듬) → 전체가 반복 “상대에게 공격하는 톤이 아니라, 경계·요청 톤으로 말해봅시다.” 	<p>▶소리 시연은 소음이 되기 쉬우니 ‘시작/끝 손 신호’를 정해 전체를 조용히 통제한다. 맞는 것은 한번만 진행한다. 길게 토론하면, 소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p> <p>▶대처 문장이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게, 문장 선택 시 ‘나-메시지’ (“나는 불편해”)를 권장하고, 친구를 몰아세우는 표현은 교사가 즉시 중립적으로 수정해준다.</p>
----	--	---

<p>3) 감정 음악과 연결하기 (3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음악(10초) 후 코러스(대처 문장)로 전환하는 구조로 이어 붙이기 • 교사: “감정을 느끼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대처로 넘어가는 전환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감정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짧고 또렷하게 말해야 안전해져요.” <p><활동 3> 상황카드로 대처 음악극 만들기 (14분)</p> <p>1) 상황 카드 선택 & 역할 나누기 (2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상황카드 1장 선택(또는 랜덤 배부) • 역할 간단 분담 (인원 적으면 역할 겸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문제 대사(1줄) 담당 B: Freeze 포즈 리더 C: 감정 음악(10초) 리더 D: 대처 코러스 리더(필요시 전체 합창) <div data-bbox="349 949 1126 130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상황1. “여자·남자애들이랑 하기 싫은데” (성별 고정관념)</p> <p>RRRR: 수업에서 여학생과 조를 짜는 걸 불평하는 학생 시나리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대사 1줄(Freeze 직전): “왜 하필 여자애들이랑 해야 돼...” • 숨은 감정 힌트(택2): 민망함, 짜증, 불안, 억울함 • 감정 음악(10초) 방향 예시: 리듬이 끊기거나(멈칫), 작게 음성(약한 썸머림), 불편한 반복 • 대처 코러스(2마디): “그 말은 불편해.” (짧고 또렷하게) • 행동 1개: 자리 바꾸기 제안, “우리 그냥 실력으로 하자”라고 방향 돌리기, 교사에게 조용히 도움 요청 </div> <div data-bbox="349 1330 1126 172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상황2. “여자·남자면 원래 이래야지” (성별 규범 강요)</p> <p>RRRR: 여러 종류의 차별·혐오·몸 평가 발언이 섞인 “mean comments” 상황을 다루며, 학급이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시나리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대사 1줄: “여자(남자)면 원래 ___ 해야지.” • 숨은 감정 힌트: 답답함, 화남, 서운함, 위축 • 감정 음악 방향 예시: 점점 커지는 썸머림(억울함↑), 빠르게 급해짐(초조) • 대처 코러스: “멈춰줘.” 또는 “그 말은 불편해.” • 행동 1개: “역할은 성별이 아니라 선택이야” 한 문장, 친구 옆으로 이동해 ‘편’ 서기 </div>	<p>▶상황카드는 웃음거리로 소비될 수 있어, 교사는 “우리는 가해자 흉내가 아니라 안전한 대처를 리허설한다”고 다시 확인시킨다.</p>
---	--

상황3. “단톡·모둠에서 “뒤에서 말 돌리기” (따돌림)
<p>RRRR 근거(시나리오 성격 일치): ‘타인을 비하·조롱하는 말(차별/혐오/몸평가 포함)’이 학급 내에서 발생할 때 주변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대사 1줄: “야 그 얘기 단톡에 올릴까? ㅋㅋ” • 숨은 감정 힌트: 불안, 두려움, 죄책감, 당황 • 감정 음악 방향 예시: 촘촘한 리듬(긴장), 높은 음역(불안), 갑자기 ‘톡’ 끊김(당황) • 대처 코러스: “그건 불편해.” + “도와줘. 같이 가줄래?” • 행동 1개: 대화 주제 바꾸기, 대상 학생에게 “괜찮아?” 확인, 교사·상담실 연결
상황4. “외모·몸에 대한 말” (몸평가·비하)
<p>RRRR: 온라인에서 외모/몸매를 평가하거나 인종·외모를 조롱하는 댓글을 다루는 시나리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대사 1줄: “그건 좀… 몸(외모) 가지고 왜 그래?” • 숨은 감정 힌트: 상처, 수치심, 분노, 위축 • 감정 음악 방향 예시: 낮은 음역(가라앉음), 느린 빠르기(무기력), 약→강(분노 올라옴) • 대처 코러스: “그 말은 불편해.”(반복 2회) • 행동 1개: “외모 말고 행동·사실로 말하자”, 댓글·메시지 멈추기 요청, 캡처 후 도움 요청
상황5. “우리 원래 친구끼리 하자” (배제·소속감 흔들기)
<p>RRRR: 조별과제에서 “우리 초등 때부터 친구라서…”라며 다른 학생을 돌려보내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대사 1줄: “미안… 우리끼리 하기로 했어.” • 숨은 감정 힌트: 서운함, 민망함, 외로움, 화남 • 감정 음악 방향 예시: 빈 공간(쉽) 크게(허전함), 반복되는 짧은 패턴(생각 맴돌) • 대처 코러스: “도와줘. 같이 가줄래?” • 행동 1개: ‘초대하는 말’ 한 문장 만들기(“같이 하자”)
상황6. “거절 이후 분위기 어색” (관계 감정 다루기)
<p>RRRR: 사귀자고 했는데 거절당하는 상황(공개/비공개에 따라 감정이 커질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대사 1줄: “아… 알겠어.”(Freeze) • 숨은 감정 힌트: 창피함, 슬픔, 화남, 안도, 미안함 • 감정 음악 방향 예시: 약한 셈여림(말 못 함), 느린 템포(가라앉음), 짧은 하강 선율(주눅) • 대처 코러스(여기선 ‘폭력 예방’ 맥락으로): “그 말, 행동은 불편해.” 대신 “거리 두기 도움 요청” 코러스 • 행동 1개: 자리 이동(거리두기), 친구와 동행, 교사에게 상황 공유

	<p>2. 장면 구성하기 (6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모둠): 아래 ‘필수 구성 요소’ 체크하며 장면 만들기 문제 대사 1줄, Freeze 3초(몸 멈춤), 감정 음악 10초(활동1에서 만든 번역표 활용), 대처 코러스 2마디(활동2에서 만든 후렴), 대처 행동 1개(말/이동 중 택1) • 교사 순회 멘트(짧게) “대사는 딱 한 줄만. Freeze가 길어지면 재현이 됩니다.” “감정은 ‘좋다/나쁘다’ 말고, 세부 감정 단어로 잡았나요?” “대처 코러스는 짧고 분명하게 들리게 해요.” <p>3. 모둠별 발표하기 (6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구성은 필수 요소 순서대로 진행 • 대사 1줄→Freeze 3초→감정음악 10초→코러스 2마디→대처 행동 1개 • 교사: “관객은 평가가 아니라 관찰자예요. ‘좋다/나쁘다’ 대신 근거로 봅니다.” 	<p>▶발표는 길게 하지 말고 조당 30~40초로 제한해 성공 경험을 만들고, 발표 후에는 비판 대신 “더 안전한 대처로 바꾸기 1가지”만 제안받아 10초 재연으로 마무리한다(수업 분위기 안정).</p>
<p>정리 및 평가 (5분)</p>	<p>1. 동료·자기평가하기 (3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개인): 평가기준에 맞춰 동료평가 하기 1) 감정이 세부 단어로 표현되었다. 2) 감정 음악에 음악 근거 2개 이상이 들렸다. 3) 대처 코러스가 짧고 분명했고, 뒤에 행동 1개가 붙었다. • 포트폴리오 기록 “내가 선택한 감정은 ___이고, 나는 이것을 ___(빠르기/셈여림/리듬)로 표현했다.”, “오늘 내가 연습한 대처는 ___이며, 그 이유는 ___이다.” <p>2. 수업 정리 (2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감정은 숨기는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고 안전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음악으로 감정을 표현했고, 한 문장 대처로 ‘멈춤’을 걸 수 있다는 걸 연습했습니다.” 	<p>▶마무리는 훈계 말고 수업을 정리하는 한 문장으로 닫는다.</p>

4. 연구 홍보물 및 답례품

1) 현수막



2) 리플렛

2025 Global Frontier Program

We are ESDer —
Learning today, educating for a sustainable tomorrow.



EWHA WOMANS UNIVERSITY
02, Ewha-ro 51beil-gil, Seoda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01/ Ewha Womans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is a school in Seoul, South Korea. It was founded by missionary Mary Scriver in 1886. Currently, Ewha Womans University is one of the world's largest female educational institutes and one of the most prestigious universities in South Korea.

The use of "Womans" means that a woman, a person with a unique personality, gathers together and receives a university education together.

02/ Global Frontier Program

Annual summer/winter programs to promote global female leaders. Programs allow teams of 4 students to actively plan and decide an exhibition topic & themes to visi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ublic institutions, global companies, and universities abroad for two weeks.

Global competency enhancement program organized by the university's Student Affairs Office, Ministry of Education.

03/ Team <ESDer> Members



Heewon Kim

ESDer Project Manager
Major: Visual Information Design
Research Areas: International Relations, Women Education



Kyuwon Kim

ESDer Project Manager
Major: Visual Information Design
Research Areas: Women Education



Mina Kim

ESDer Project Manager
Major: Visual Information Design
Research Areas: Women Education



Hakyong Lee

ESDer Project Manager
Major: Visual Information Design
Research Areas: Women Education

04/ Research Process

1. Team Recruitment & Topic Selection (Jan. 2025)
2. Literature Review & Research Design (Feb. 2025)
3. Country Visit & Field Investigation (Apr. 2025)
4. Exhibition Content Development (Apr. 2025)
5. Exhibition in Australia & New Zealand (May. 2025)
6. Feedback Collection & Report (May. 2025)

05/ Team <ESDer> Overview

ESDer is a research team formed around a shared commitment to future-oriented education and a deep concern for sustainability as a global challenge facing humanity. The team perceives the role and direction of education as a driver of sustainable change.

The name ESDer combines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with the suffix "er" meaning "those who practice ESD." As peer-mentor teachers, our team members share the belief that to become good educators, one must first be an engaged and reflective learner, and we strive to embody a continuous learning mindset throughout our work.

The project focuses on examining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in ESD,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ecological education, cultural diversity, and gender equality. By translating these insights into actionable strategies for their education in Korea and leveraging our highly-motivated educational policy recommendations, we aim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esponsible and inclusive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s.

Australia and New Zealand were selected as key sites for this expedition. Australia is recognized for its strong emphasis on sustainability education that frames ecological challenges—not as binary choices, but as a holistic, interconnected, shared social responsibility, alongside long-standing relations that promote multiculturalism and text to write.

New Zealand,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grant women the right to vote, offers a historically grounded model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An educational approach also places strong emphasis on cultural respect, particularly for Māori traditions, and on the interconnected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making it a highly meaningful context for the expedition.

06/ Research Focus and Objectives

"A Study on Applying Best Practices i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to K-High Education in Korea: Focused on Ecological, Cultural Diversity, and Gender Equality."

- 01 Acquiring current themes and practices/works of ESD. The expedition will closely examine Australia, New Zealand, in addition to education that focus students ecological literacy in sustainable learning, diversity,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that actively promotes respect for diversity and challenge cultural stereotypes, and gender equality education that addresses issues of equality and justice within a human rights-based framework of respect for diversity.
- 02 Through these observations, the project seeks to identify, need to improve ecological literacy, cultural diversity, and community-based leadership for women and age-long social activities, thereby contributing to students' emotional well-being, character development, and citizenship growth.
- 03 Developing curriculum aligned and practice-based lesson plans.
- 04 The 202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Korea emphasizes the education of human capability to respond to challeng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uphold community values, in addition to social capabilities related to community engagement and collaborative communication skills.
- 05 By utilizing the research data, insights, and experiences, the expedition will conduct the project evaluation process for teachers. The project aims to develop practical and effective teaching-learning lesson plans that offer meaningful and meaningful work experiences.
- 06 Building international networks and contributing to future-oriented educational discourse. Through experiences and exchanges with staff member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schools, the expedition will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connections/discourse surrounding sustainable ESD models to address the contemporary educational challenges and to build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s for teachers. The project aims to promote meaningful teaching frameworks that can support the growth of post-2030 teachers and contribute to society education.

3) 인터뷰이 답례품

- 국내 탐사 답례품 - 이화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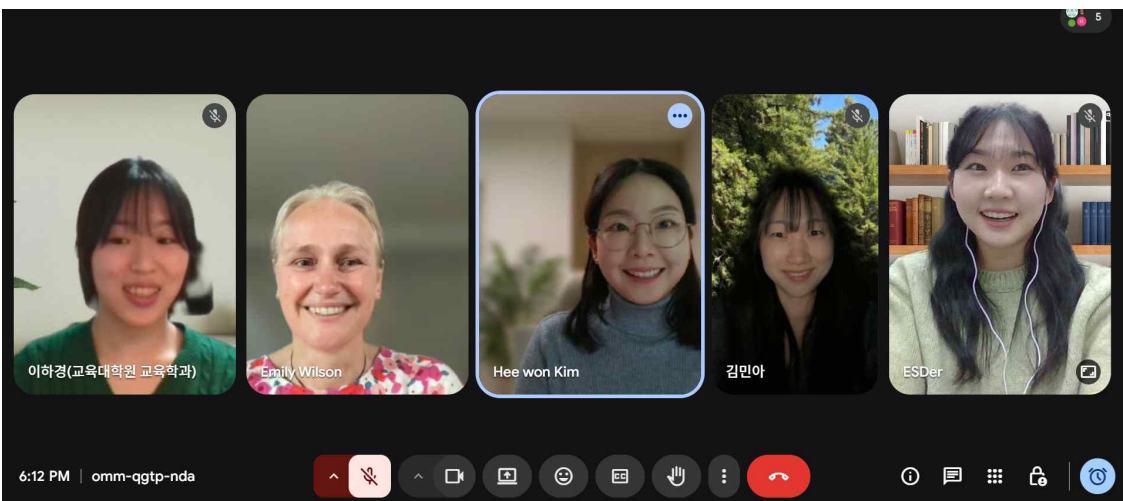
- 해외 탐사 답례품 - 복주머니와 티코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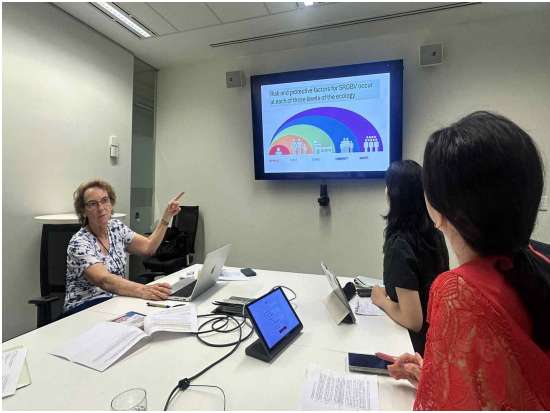
5. 인터뷰 현장 사진



Neryl Jeanneret (The University of Melbourne)



Emily Wilson (The University of Melbourne)



Helen Cahill (The University of Melbourne)



Peter Mousaferiadis (Cultural Infusion)



Andrew Ducat, Gill Aldworth (Konini School)



Susan Hutchinson-Dainel (Enviroschools)



Millie Locke (The University of Auckland)

참 고 문 헌

- 김선환, 김진환, 이석록, 정재훈, 최진규, 피상훈(2025). SDGs와 함께하는 심화 탐구보고서. 서울교육과학사.
- 김예린. (2023).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수업지도안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경, 김경희, 김현미, 이수정, 육민정(2022). 미래교육 전망: UNESCO 교육의 미래와 OECD 교육 2030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O 2022-1.
- 권영락, 이미숙, 김혜숙, 유은정, 김찬국(2021).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국가·사회적 요구 조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21-1.
- 교육부(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2).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제2022-33호 [별책 12]. 교육부 누리집.
- 교육통계서비스. (2024). 2024년 교육기본통계: 다문화 학생 현황.
- 법무부. (2024). 2024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
- 배주경, 서지영, 성경희, 이미경, 이미숙, 장근주(2022). 초·중등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수행 중.
- 장수현(2025). 국가 수준 유아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내용 비교 분석 : 한국, 일본, 호주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승(2019). 젠더 관점에서 본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국제이해교육학회논문집, 14(1), 107-150.
- 최진경(2022). 생태전환교육으로서 실천적 음악교육의 가능성과 의미 탐색, 미래음악교육연구 7(3), 123-146.
- 최진경(2025). 포스트휴먼 생태주의에 기반한 초등 음악 수업 방안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3), 91-105.
-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2023). 놀이중심의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
-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2020). *GCED learning and assessment: An analysis of four case studies in Asia*. Seoul: APCEIU.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ion. (2022). *Belongign, being & becoming: The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for Australia(Version 2.0)*.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for the Ministerial Council.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ome Affairs. (2025, December 19).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 Brown, R., & Jeanneret, N. (2017).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connections: The ArtPlay case study*. *Arts Education Policy Review*, 118(1), 37-50.
- Bull, A., Scharff, C., & Stahl, G. (2022). *Mapping gender, class and racial inequalities in UK higher music education*.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International*

- Journal of Music Education*, 43(2), 256-268.
- Cahill, H., Beadle, S., Davis, M., Farrelly, A., & Romei, K. (2018). *Connect with respect: Preventing gender-based violence in schools: Classroom programme for students in early secondary school (ages 11-14)*. Paris and Bangkok: UNESCO.
- Cahill, H., & Dadvand, B. (2021). *Triadic labour in teaching for the prevention of gender-based violence*. *Gender and Education*, 33(2), 252-266.
- Cahill, H., & Dadvand, B. (2022). *Transformative methods in teacher education about gender-based violence*. *Pedagogy, Culture & Society*, 30(3), 311-327.
- Cahill, H., Dadvand, B., Suryani, A., & Farrelly, A. (2023). *A student-centric evaluation of a program addressing prevention of gender-based violence in three African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15), 6498.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5, July 21). *About violence prevention*.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검색일: 2026년 2월 5일.
- Crimes Legislation Amendment (Sexual Consent Reforms) Act 2021 (NSW) (Austl.). (2021).
- Criminal Law (Coercive Control and Affirmative Consent)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Act 2024 (Qld) (Austl.). (2024).
- Dadvand, B., & Cahill, H. (2021). *Structures for care and silenced topics: Accomplishing 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in a primary school*. *Pedagogy, Culture & Society*, 29(2), 299-313.
- Dickson, S., & Willis, R. (2021). *Evaluation of the BodySafe programme: Preventing sexual and dating violence in New Zealand schools*. Rape Prevention Education.
- InsideOUT Kōaro. (2023). *Annual report 2022-2023*. InsideOUT Kōaro.
- Jeanneret, N., & Brown, R. (2013). *Behind ArtPlay's Bright Orange Door*. The University of Melbourne.
- Jeanneret, N. (2023). *Creativity and inclusion in aesthetic and arts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Research in Cultural, Aesthetic, and Arts Education*, 1(1), 25-31.
- Justice Legislation Amendment (Sexual Offences and Other Matters) Act 2022 (Vic) (Austl.). (2022).
- Marshall, H., & Arnot, M. (2008). *Globalising the school curriculum: gender, EFA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Faculty of Education, Research Consortium on Educational Outcomes and Poverty (RECOUP).
- Ministry of Education (New Zealand). (연도 없음). *Building teacher capability. Tahurangi—New Zealand Curriculum*. 검색일: 2026년 1월 31일, <https://newzealandcurriculum.tahurangi.education.govt.nz/building-teacher-capability/5637160333.p>

- Museums Victoria. (1981). *Royal commemorative tin, 1981 [Museum collection label]*. Immigration Museum (Museums Victoria), Melbourne, Australia.
- Museums Victoria. (1999). *Badge, Multicultural Affairs Branch, Canberra, 1999 [Museum collection label]*. Immigration Museum (Museums Victoria), Melbourne, Australia.
- Museums Victoria. (2000). *SBS commemorative medal, 2000 [Museum collection label]*. Immigration Museum (Museums Victoria), Melbourne, Australia.
- Museums Victoria. (2002). *Souvenirs and Australian flag, 2002 [Museum collection label]*. Immigration Museum (Museums Victoria), Melbourne, Australia.
- Museums Victoria. (2004). *Harmony Day calendars, 2004 [Museum collection label]*. Immigration Museum (Museums Victoria), Melbourne, Australia.
- Museums Victoria. (n.d.). *Immigration Museum exhibition text panels and signage (visited 2026, January 9) [Exhibition text]*. Immigration Museum (Museums Victoria), Melbourne, Australia.
- NCCA. (2021).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national curriculum audit*. Ireland: NCCA.
- New Zealand Family Planning. (2017). *Sexuality education: A guide for principals, boards of trustees, and teachers*. Ministry of Education.
- Our Watch. (2015). *Respectful relationships education in schools: Evidence paper*. Melbourne, Australia: Our Watch.
- Our Watch. (2019). *Respectful relationships education toolkit (Full toolkit)*. Melbourne, Australia: Our Watch.
- Our Watch. (n.d.). *Whole-of-school approach*. Melbourne, Australia: Our Watch. 검색일: 2026년 2월 5일.
-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SBS). (2025). *SBS50: Celebrating 50 years of SBS*.
- Scharff, C. (2017). *Gender, Subjectivity, and Cultural Work: The Classical Music Profession*. London King' s College.
- The Colombo Plan Secretariat. (n.d.). *Who we are*. Retrieved January 30, 2026. from <https://colombo-plan.org/who-we-are/>
- UNESCAP. (n.d.).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UNESCO APCEIU). 검색일: 2026년 1월 31일.
- UNESCO. (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Paris: UNESCO.
- UNESCO. (2016).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target 4.7: The challenging road toward 2030. Global Commons Review, 1(1), 1-5*.
- UNESCO. (2018). *Issues and trends i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is: UNESCO.

- UNESCO. (2020).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roadmap*. Paris: UNESCO.
- UNESCO. (2021). *Berlin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rlin: UNESCO.
- UNESCO. (2024). *Mainstream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 education systems: Policy guide*. Paris: UNESCO.
- UNICEF. (2024). *Global annual results report: Gender equality*. New York: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 Werner, A., & Kuusi, T. (2025). *Gender equality discourse in classical music higher education: Women, individualisation, and change*.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43(2), 256-268.
- Wilson, E. (2022). *'It's music and we came to play instruments': Teaching for engagement in classroom music*. *Music Education Research*, 24(4), 512-528.
- Wilson, E., Jeanneret, N., Selkrig, M., Hillman, J., & Bolden, B. (2023). *Arts education imperatives: Connecting the glob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 the Arts*, 24(4).
- Young Women's Advisory Group for ERA. (2023). *Let's talk! Young women and non-binary peoples' experience of sex education in Australia*. Australia: ERA.